

현대중공업가족

10
2017



차세대 신기술 개발 성공

이달의 표지 주인공



김인영 양(목포애항중 2학년)
김재창 차장(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의 딸

“땅, 바다, 하늘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배”

‘배는 바다 위에, 자동차는 도로 위에, 비행기는 하늘 위에’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고정관념인 셈이죠.

그러나 인영 양은 바이킹의 배와 자동차의 바퀴, 비행기의 날개가 달려있는 배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미래에는 ‘바다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육지와 하늘까지 넘나드는 배가 탄생할 거라 믿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배를 상상했다는 인영 양은, 현대삼호중공업이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노력한다면, 머지 않아 이 배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림 속 프로펠러와 바퀴는 생동감이 넘쳐, 배가 금방이라도 ‘윙’ 소리를 내며 앞으로 달려나갈 것 같은데요, 인영 양은 뛰어난 그림 실력을 자랑하지만, 장래희망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와 커다란 배를 만드는 사우들이 참 멋지다고 말하는 인영 양. 지금처럼 순수하고 예쁜 마음을 간직해, 소중한 꿈을 꼭 이뤄나가길 바랄게요.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커뮤니케이션부문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2017 · 10

Contents



14

기획1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 04 감사의 힘
- 06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 08 고마워요, HHI
- 10 소개합니다

기획2 정(情)다운 한가위

- 12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 14 문화를 배우다



사람 · 일

- 18 현장을 가다**
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 전장팀
- 22 알아보시다**
군함의 작명(作名)법
- 24 우리 결의 이런 사우**
현대중공업 오정철 기장, 대들보분임조
- 26 우리 부서 미니 사보**
현대삼호중공업 의장2부
- 28 이달의 도전**
'좋은 엄마' 도전기 / 현대중공업
보안비상기획부 이수연 사우
- 30 아름다운 동행**
현대삼호중공업 잠수동호회
- 32 든든한 파트너**
디엠씨(주)
- 34 세계를 가다** 일본
- 36 그때 그 시절**
1977·1987·1997·2007년 10월

지역 · 삶

- 38 만나보았습니다**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최중석·박순희 씨 부부
현대미포조선 자재구매부 이강희 대리
- 40 울산 지역 소식**
서부동 '도시재생대학' /
태화강 동굴피아
- 42 가볼 만한 곳**
가을을 만끽하는 전국의 축제
- 44 자녀와 함께** 경주 황리단길
- 46 추억이 방울방울**
울산 동구 롤러스케이트장
- 48 맛있는 이야기**
전통차집 '산들소리'
- 50 걷기 좋은 길**
태화강대공원 무궁화정원 & 생태공원
- 52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서부동 엄순화 씨
- 54 건강칼럼** 용혈성 요독 증후군
- 56 나를 만나는 시간** 번 아웃 증후군

보람의 일터

- 58 뉴스 하이라이트**
- 62 그룹사 소식**
- 64 문화 포커스**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문화송년 송승환의 '난타'
- 66 축구단 소식**
- 68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흔들흔들 댄스핏(Dancefit)
- 70 트렌드 따라잡기**
휘게(Hygge)
- 71 현중 가족 글마당**
- 78 사우들의 추천 도서**
- 80 생활법률**
- 81 만화**
- 82 쉬어가는 페이지**
- 83 이달의 명화**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

부모들은 아기가 ‘엄마’, ‘아빠’를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를 가르친다.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발음하기 쉽고, 금방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고마워요’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인류는 아이들에게 그토록 서둘러 그 말을 전해주었을까?

‘감사’는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해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Robert Emmons)’ 교
수는 마이애미대학교 ‘마이클 매컬로프(Michael McCullough)’ 교
수와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바로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두 교수는 자원봉사자를 뽑아 실험 그룹을 만들고 이들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1년 동안 A그룹은 기분
나쁜 일, B그룹은 감사한 일, C그룹은 일상적인 일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해 집중하도록 했다.

그들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감사하는 태도에 주력한 B그룹의 사
람들이 실험기간동안 가장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질투를 느끼거나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좌절을 겪은 일도 현저히 적은 것으로 분
석됐다. ‘감사가 자신은 물론 주변에도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
이다.

무한대로 나눌 수 있는 긍정 에너지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목표
를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는 평
소 “우리 주변에는 감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으며 그것들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부터 감사
한 일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인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 남을 돕고자 하는
경향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자체도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행복해지고, 그런 행복감에 또 다시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보자. 옆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동료에게, 언제나 걱정해주는 상사에게, 건물을 지켜주는 경비원에게, 매일 같은 시각에 도착하는 버스 기사님께 또 감사의 뜻을 전달해 보자. 감사는 아무리 남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도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는 무한 긍정 에너지다.

‘감사 노트’ 작성하며, 하루 돌아봐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배움과 훈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노트를 펴고 필기구를 준비한 다음,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세 가지만 추려보자.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할 일을 하나 결정해서 노트에 메모한다. 무엇이든 나를 기분 좋게 만든 일을 적으면 된다.

감사를 느낀 상황이나 사건을 적은 후에는 그 일들이 왜 자신의 인생에서 좋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적는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지 떠올리고 그 내용까지 덧붙인다.

‘감사 노트’ 작성은 하루 동안의 잘된 일을 통해 자신을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반성하며 발전을 도모하게 만든다.

또,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대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감사는 아무리 남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도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는 무한의 에너지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보자.

옆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동료에게,

언제나 걱정해주는 상사에게.

감사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고, 생기 있고,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며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돼 있다.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자신이 더욱 사려 깊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남을 부러워하거나 화내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훨씬 적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고, 감사를 주고받게 되면 결국 나 스스로에게도 감사를 전하게 된다.

좋은 감정을 보다 넓고 확장된 시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강해지고 활기차게 변한다.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고 그것을 반추하면서 기쁨은 더욱 커진다. 기쁜 감정은 결국 감사의 힘에서 비롯된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드는 미세한 차이, 그것이 행복의 물줄기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왜 ‘고마워요’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 사람들과 어울려 도움을 주고받자. 일상의 좋은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하자. 내가 꿈꾸는 삶은 감사하는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작업장 구현, 함께 해요!”

선박을 건조하는데 사용되는 수많은 장비는 유용하면서도 위험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장비를 잘 활용하면 작업을 빠르게 끝낼 수 있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안전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건조 1부에서 근무하는 한상록 과장(37세)은 작업 현장에서 현장 사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 개발에 앞장서 안전 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동료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사보편집실을 찾았다.



사우들의 고민에서 '해결책' 마련

“현장에서는 사우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이 발명품 덕분에 작업이 더 수월해졌어요”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고소차를 타고 올라가 러그를 제거하는 사우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러그(LUG)는 선박 건조 시 블록을 이동 및 탑재할 때 크레인에 걸 수 있도록 부착된 고리로 블록 탑재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후 본래의 용도를 다 하게 된 러그는 선박 건조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 작업을 위해 고소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러그는 고소차 핸드레일에 족장용 변선(2개 또는 4개)을 고정시켜 제거하는데, 40~120kg의 무게에 달하는 러그가 선반 외편에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충격으로 고소차 바스켓이 파손되거나 자칫 러그가 도크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공무부는 건조 1, 2부 부서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고,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연구 개발을 거쳐 총 4종의 '러그 제거 전용 지그'를 최초로 개발해냈다. 안전한 작업장 구현을 위해 현대삼호중공업 사우들이 푹푹 뭉쳐 이뤄낸 쾌거였다. 한상록 과장은 이 과정에서 묵묵히 현장 사우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준 정병찬 반장의 공이 컸다며, 대표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병찬 반장은 건조 현장을 직접 찾아 일일이 발로 뛰며, 사우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사우들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는 연구를 계속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은 수십 종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러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장 사우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고품질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한다.

특히 이 장비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일반 고소차에 장착만 하면 돼,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용 고소차를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한미음 한뜻으로’ 경쟁력 향상에 일조

“당연히 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한상록 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병찬

반장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이어서 정병찬 반장은 “사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현장의 어려움을 알게 됐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음 먹었던 일이 사우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행복하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그는 러그 제거 전용 지그에 이어서 선박을 진수한 후 도크 내 가득찬 펄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Washing Jig)의 개발이 성공 목전에 왔다는 소식을 알렸다. 지금은 비록 시험 단계에 있지만 상용화 되고 나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상록 과장은 “항상 현장 사우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 해주는 정병찬 반장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인 장비 개발로 사우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회사에서는 수많은 사우들이 명품 선박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동하고 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부서의 경쟁력, 나아가 회사의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 이들의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낸다.

블로그 'hi,hi'에서
이들의 굳게 맞잡은 손, 따뜻한 동료애를
느껴보세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만의 비결(秘訣)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5년간 전 세계 50여개국 300여개사의 고객들과 함께 일하며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잡아 왔다.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에 감동한 고객들의 감사 인사는 그간의 고생과 노력을 보상받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이 된다. 고객들로부터 특별한 감사를 받은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끈끈한 '신뢰' 빛난 명명식 현장

명명(命名)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붙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어떤 존재가 되길 바라는 명명자의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건조하는 선박에도 저마다의 이름이 부여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식(命名式)이라는 행사를 갖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두 번, 사우 부인이 이 뜻 깊은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명명식이 열렸다. 4월 20일에는 박영일 과장(38세, 조선품질경영1부)의 부인 진미경 씨(37세)가, 7월 25일에는 서주필 차장(43세, 현대중공업 조선계약운영1부)의 부인인 전

유미 씨(43세)가 프랑스 CMA CGM사의 1만4천400TEU급 컨테이너선의 명명식 스폰서로 나선 것이다.

이는 우수한 품질의 선박 건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선주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보통 명명식의 주인공인 '스폰서'는 주로 선주의 부인이나 딸, 선주사의 고위 관계자가 맡는 것이 관례지만, 종종 고객들의 특별



(위) 박영일 과장의 부인 진미경 씨 / (아래) 서주필 차장의 부인 전유미 씨

한 요청으로 프로젝트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우나 부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진미경 씨는 “남편의 정성이 깃든 선박을 직접 명명하게 돼 뿌듯하고, 이런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서주필 차장은 “시리즈 호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객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불러줘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라며, “이날만큼은 최고의 귀빈 대우를 받은 아내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은 각각 「CMA CGM G. WASHINGTON」과 「CMA CGM J.ADAMS」로 명명된 후,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정식 이름을 부여 받고, 비로소 선박으로서의 일생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현대중공업과 고객의 끈끈한 신뢰와 우정이 더욱 빛났다.

“다음 호선에도 꼭 같이 합시다!”

현대미포조선에 연이어 7척의 선박 건조를 맡긴 그리스 CMM사가 꼭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도장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현대E&T 박경두 선임(38세)이다. 박경두 선임은 지난 2014년부터 현대미포조선에서 그리스 CMM사가 발주



한 5만톤급 PC선(석유화학제품운반선)의 선박도장검사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선박이 인도될 때면 감사편지에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도장작업은 선종과 선박의 부위에 따라 2~5회에 걸쳐 진행되는 데, 대부분 선주사 감독관과 함께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박경두 선임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을 수 밖에 없다.

도장작업이 시작되면 선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반면, 도장작업을 맡은 협력사는 현장의 상황과 날씨 등을 이유로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들 사이의 갈등을 원만히 중재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정자가 박경두 선임이다.

그는 선주사와 현장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다른 조선소에서의 근무경험과 현재 야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Needs)

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돕고 있다. 덕분에 요구사항이 많고 간간히 유명한 CMM사의 감독관들조차 “다음 호선에도 박경두 선임과 꼭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다.

박경두 선임은 “수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만족해야 또 다른 수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며, “선주 측에서 품질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통’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은 테나마리스사가 발주한 15만9천톤급 탱커선(COT:Crude Oil Tanker) 2척을 건조하며, 선주사 감독관인 유창 씨(39세)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 조기철 대리(36세)와 현대 E&T 박경석 사원(36세), 김효록 사원(38세)이 선박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선박 선체검사 업무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선주사에서 크게 감동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고의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며, 선주사와 현장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왔다. 특히 이들은 선주사와 현장 간의 갈등이 빚어지면 서로에게 현재 상황



을 충분히 설명해 실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협의함으로써 공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주사와 현장의 의견을 조율했다.

테나마리스사의 유창 감독은 “헌신적인 모습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멋진 선박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뛰어난 업무 실력과 그에 버금가는 진정성으로 고객사에 감동을 전해준 이들, 현대삼호중공업이 여전히 고객사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직원들의 따뜻한 진심과 열정 때문이 아닐까.

“동료에 대한 고마움, 적극 표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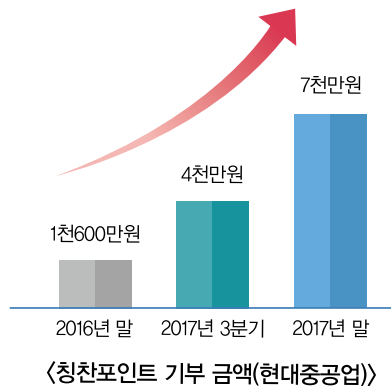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4월,사우들의 근무 만족도와 성취감 향상을 위해 ‘칭찬포인트’라는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많은 사우들의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칭찬포인트 제도는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조직을 만드는데 한몫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칭찬포인트’는 불우이웃들을 응원하며, 훈훈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불우이웃 돕기에 나선 ‘칭찬왕’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지난 9월 19일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칭찬포인트’ 성금 전달식을 갖고, 이날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불우이웃 8세대에게 1천1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장학금을 지원했다.

‘칭찬포인트’는 고마움을 느낀 동료에게 포인트를 보내고 매월 가장 많이 받은 직원들을 포상하는 제도다. 포인트 1점당 100원씩이 적립돼 현대중공업은



이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칭찬포인트 성금 전달식이 열린 이날 현대중공업 직원 20여명은 직접 밀반찬과 가전제품을 포장한 후 각 세대에 전달하며 온정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평소 회사에서 주위 동료들을 배려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대중공업 칭찬왕’들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일 배달원으로 나선 것이다.

이번 봉사에 참가한 조호신 대리(31세,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정보부)는 “작은 도움에도 기뻐하는 독거 어르신

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깊숙한 곳까지 훈훈했다”며, “회사에서 칭찬왕으로 인정받을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날 봉사를 시작으로 추가 3천여만원의 칭찬포인트 성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외에도 연말 김장 담그기 등 각종 자선행사를 통해 올해 총 7천만원의 칭찬포인트 성금을 불우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행 1년 넘어서도 칭찬 포인트 인기 여전

칭찬 포인트 제도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 사무기술직 사우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고, 그 해 6월과 7월에 각각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으로 확산되며 그룹 전체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우들의 참여는 식을 줄 모른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칭찬 포인트 합계는 지난 8월 한달 간 2만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동기(1만4천점)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생산기술직 사우들도 칭찬포인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사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말까지 사내 인트라넷은 물론 '모바일 인사정보시스템(Hi-HR)'에서도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게 개선해, 칭찬 포인트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작은 보상이 '성취욕' 강화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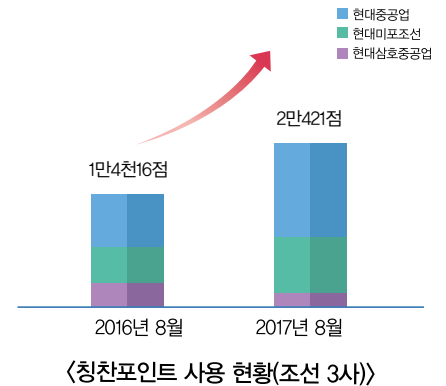
현대중공업은 부문별로 최다 칭찬 포인트 적립자에게는 소액의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은 보상' 제도는 큰 포상금 못지 않게 내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조직문화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평소 칭찬포인트를 애용한다는 김종민 사우(41세, 현대중공업 해양시운전부)는 “현장 직원들은 묵묵히 구슬땀을 흘려도 칭찬받기 힘들었는데, 칭찬포인트로 대신 격려의 말을 들으니 이전보다 더욱 근무의욕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작은 성과라도 조금씩 보상받으면,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감에 성취욕이 생기고, 새롭게 도전하는 힘을 얻는다. 작은 보상이 만드는 직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결국 회사의 발전에 큰 힘이 된다.

일본 도요타(Toyota)사의 성장을 이끈 에이지(豊田英二) 전 회장도 만년필과 같은 작은 보상을 선호했다고 한다. 그는 “작은 보상 덕분에 직원들은 매년 150만개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으며, 그 중 95%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동안 직장에서 주위 동료나 후배 사우들에게 칭찬에 인색했다면, ‘칭찬포인트’를 지급하며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 작은 칭찬이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칭찬포인트 등록 방법 안내

「인사정보시스템(Hi-HR) 접속」 - 「인사정보」 - 「모바일포상」 - 「칭찬포인트」

이제는 독담(毒談)말고, 덕담(德談)!

우리는 예부터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가을이 오면 온 가족이 모여 새로 거두어들이는 곡식과 함께 덕담을 나누곤 했다. 그런데 서로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그 자리에 '오지랖'이란 녀석이 등장하는 순간, 덕담(德談)은 이내 독담(毒談)으로 변해버린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1%가 '덕담을 가장한 잔소리'를 명절 스트레스의 주범으로 꼽았다고 한다. 사보편집실에서는 덕담부터 독담까지, 사우들의 기억에 남은 가족들의 한마디를 소개한다.



전성열 사우 (29세)
현대중공업 특수선시운전부

“애를 낳아야 애국이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깨소금 듬뿍 볶으며 신혼을 즐기고 있는 결혼 2년차 새신랑입니다. 오랜 연애기간을 통해 결혼 전부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뒀는데, 명절이 되면 그 계획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바로 집안 어른신들의 '2세 문의' 때문이죠. 아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저희 부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자꾸 재촉들을 하시니 난처할 때가 있네요. 때가 되면 힘닿는 대로 낳아 애국(愛國)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강철언 사원(28세)
현대 E&T 삼호설계팀

“인생은 좋은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단다”

바야흐로 군대에 입대하던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쪽지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아들아, 좋은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다. 힘들 땐 하늘을 보며, 좋았던 날들을 떠올리며 덤덤히 살아가라' 그 당시, 저는 이게 냉정하기 짝이 없는 글귀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미를 파악하여 가슴에 새기기보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아버지의 진한 삶의 무게가 담긴 쪽지가 현재의 제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에게 받은 그 쪽지는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게 이 글귀는 힘든 일상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부적'입니다.



이성원 대리(33세)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살 좀 빼야겠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살이 많이 찌서, 명절에 친척 어른신들을 만나면 “살 좀 빼야겠네?”라는 말을 자주 들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다이어트에 성공해 건강한 모습이 됐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 다시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성인이 되어 “계속 살이 찌네? 언제 뺄거니?”라는 말을 듣게 되니, 어릴 때 가슴 아팠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더 큰 상처가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때 또 다이어트하라는 얘기를 들으며,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먹지 못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야”

저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일에 매진했지만 결국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하루가 멀게 ‘이 길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이 되어, 평소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사촌언니를 만났고, 저는 저의 고민 거리를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마.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는 위로의 한마디였습니다.



신영미 사우(24세)
현대삼호중공업 품질경영2부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저희 부부는 첫째 아이를 힘들게 낳았습니다. 아내가 조산(早産)기가 있어 임신 기간 가운데 7개월 정도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은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인이 먹을 반찬을 다 챙겨놓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 부부가 몸도 마음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첫째를 출산했는데, 첫 명절을 맞아 부모님에 아이를 데려가니, 부모님은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말씀이 무척이나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김형근 과장(35세)
현대미포조선 공사지원부

재미로 보는, 유형별 독담 대처법



논리형

본인의 인생관이 확고하고, 탄탄한 논리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 이 방법으로 성공을 거둘 경우, 앞으로 명절 날 잔소리를 들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최근 물가상승지수와 전세대란 그리고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지금 아이를 갖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선공략(?)형

어르신들의 반갑지 않은 질문이 다가오기 전, 가족들의 예민한 부위를 먼저 공략한다. “큰아버지 사업은 어떠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대던데”, “고모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자기계발형

임시 준비, 취직 준비 등 각종 공부를 핑계로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 좀처럼 나오지 않는 방법이다.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뽀뽀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하며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연대형

집안의 약자끼리 뭉친다. 입사나 취직을 앞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방법이다. 어딘가에서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은 사촌을 대신해 “뭘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분명히 알아서 잘 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주자.



엔조이형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해탈의 경지다. 다른 쪽 뺨까지 내주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족 어른들을 이해하는 홀룡함을 보여주자.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자기만족이 있다면 그 어떤 잔소리도 견딜 만하다.



풍습은 달라도 가족 사랑은 ‘한마음’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국의 대명절 ‘추석(秋夕)’이 눈앞에 다가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명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국가별로 그 풍습은 제각각 다르다.

사보편집실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외국인 직원들이 자국의 추석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각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자.



가나이 마사오(金井 政雄) 부장

현대중공업 동경지사/일본

대부분의 일본 회사는 양력 8월 15일 전후에 ‘오봉’이라는 휴가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묘를 하며 친족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오봉’은 한국의 ‘추석’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원은 전혀 다릅니다. ‘お盆(오봉)’은 불교의 ‘盂蘭盆會(우란분회)’에서 나온 말로 조상들이 저승에서 돌아와 자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음력 7월 13일부터 16일이었으나 메이지(明治) 시대에 양력을 쓰면서 지금은 양력 8월 13일부터 16일에 ‘오봉’을 지냅니다.

13일은 저승에서 찾아오는 조상들이 자손의 집에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마중한다는 의미의 ‘迎え火(무카에비)’라 하여 집 앞에서 나무를 태우고, 16일에는 저승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웅한다는 의미의 ‘送り火(오쿠리비)’라 하여 나무를 태웁니다.

집에는 ‘盆提灯(분제등)’이라는 초롱을 다는 곳도 많이 있으며, 조상들이 타고 갈 수 있도록 ‘精霊馬(정령마)’를 오이나 가지를 사용해 말이나 소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봉 기간 전후에는 동네마다 ‘봉-오도리’라는 독특한 춤을 추는 축제가 열립니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의 교류를 위한 여름축제가 되었으나 ‘봉-오도리’의 기원은 ‘오봉’ 기간에 돌아온 조상들을 위로하며 함께 즐긴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응웬 티 디엠
(Nguyen Thi Diem) 부장

현대-비나신조선 인력개발부/베트남

베트남에도 한국처럼 음력 8월 15일에 추석(Tet Trung Thu, 텃 쯡 투/중추절)이 있습니다. 비록 추석이 설날처럼 긴 연휴가 있는 큰 명절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농경문화가 기본이 되는 나라인 만큼 베트남 사람들은 수확 후 가족 및 친지들과 모여 조상들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전부 모여 가족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추석 풍습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월병(Banh Trung Thu, 반 중 투)을 나눠먹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베트남의 추석이 가족만을 위한 명절이었다면, 요즘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직장동료,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추석이 되면 월병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하며 기념하기 때문에 이 때쯤 베트남 거리는 온통 월병 광고판으로 뒤덮이곤 합니다.

또한 가족들은 대나무로 만든 별 초롱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물고기 모양, 호롱불 모양 등 각 가정마다 특별한 모양의 초롱불을 만드는데, 보통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이 직접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합니다. 아이들은 이 초롱을 들고 마을을 행진하고, 한국의 사물놀이와 비슷한 용춤, 사자춤 행렬이 온 동네를 누빉니다.



현대삼호중공업 마음정원/네팔

네팔은 매년 9~10월경 보통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간 이어지는 최대 명절이자 축제, '다사인(Dashain)'을 맞이합니다. 다사인은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한 여신 '두르가'를 숭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건한 기원과 축복'을 위한 축제이다 보니 단순하게 광장으로 뛰어나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르며 가족, 이웃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핑계를 대며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고 여기는 탓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먼저 첫째 날에 평평한 접시에 모래를 담고, 그 위에 보리 씨를 뿌려 집에서 가장 신성한 곳에 놓고 매일 물을 줍니다. 그로부터 축제 열흘째 되는 날, 길게 자란 싹을 뽑아서 머리에 장식하는데, 이는 두르가(Durga)의 은총을 상징해, 남녀 모두 액세서리처럼 머리에 꽂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네팔의 고도시 고르카에서 제물로 사용될 꽃이 카트만두(네팔의 수도)로 오고, 여덟째 날은 가족들을 신전에 바치며, 아홉째 날은 사원을 방문합니다.

이러한 순서에 맞춰 진행되는 다사인은 아주 잘 짜인 대규모 축제입니다. 특히 여덟째 날이 되면 셀 수도 없는 염소들이 신전에 바쳐지기 때문에 '다사인' 기간에는 염소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승리의 날이라 불리는 축제의 절정, 이 날을 시작으로 축제가 남은 5일간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차려 입고 친척과 이웃들을 방문합니다. 연장자는 아랫사람들과 덕담과 함께 티카(Tika/염료로 이마에 점을 찍으며 축복 기원)라는 붉은색 염료를 찍어줍니다. 붉은색은 '혈육'을, 이마의 점은 '신이 주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덕담에 주술적인 의미가 보태지는 셈이죠. 이 밖에도 다사인 축제 기간에 네팔인들은 연 날리기, 그네뛰기, 카드놀이 등을 하며 즐거운 축제를 만끽합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평소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러 가는 이들의 마음은 모두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사라 마야 따망 사우





고운 한복 입고, 셀프 카메라에 담기 바빠

한복 탈의실의 문고리가 닳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며, 웃고름을 잡고 팔랑팔랑 뛰어다니는 그들은 마냥 신난 어린이 같아. 한복이 모자라 서로 교대로 입기를 기다리는데,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디자인에 “예쁘다, 멋있다” 등의 감탄사를 연 발한다.

수업시간을 잊고, 자신의 모습을 셀프 카메라에 담느라 바쁜 이들의 얼굴에는 화사한 미소가 가득하다. 한껏 신난 여학생들의 긴 머리카락을 일일이 손가락으로 정리하며 한 가닥 두 가닥으로 땅아 묶어주는 이연주 교수(울산과학대 국제교류어학교육원장)는 이미 유학생들에겐 한국의 어머니로 통한다. 그녀의 자상함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남학생들은 바짓부리를 대님으로 정리해 저고리와 잘 갖춰 입고, 여학생들도 웃고름 맨 저고리에 단정히 치마를 입었다. 왼손, 오른손 가지런히 올리며 절하는 법을

“땡땡쿵 장구치고, 송편 먹으며, 윷이야!”

세상의 색을 담고 있는 고운 한복을 입고, 콩 앙금 가득한 송편을 빙는다.

여של프게 잡은 장구채에, 아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도개걸윷모’ 규칙에 따라 말이 이동하면 엇갈린 희비의 함성이 들려온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한국 전통문화 수업을 받고 있는 울산과학대의 풍경이다.



배우는데 ‘철퍼덕’ 하고 엉덩방아 찢는 친구의 실수에 함박웃음이 터져 나온다.

세마치 장구 장단 “딩~ 덩~ 딱 쿵딱”

한국전통 문화수업 강사인 정혜란 선생님의 장구 소리가 강당을 울린다. 학생들은 그녀의 장구 소리에 맞춰 세마치 장단을 배우고 아리랑을 불러본다.

고볼로브 베호조드(21세, 우즈베키스탄, 울산과학대 컴퓨터정보학부) 학생은 “아리랑을 부르다 보면 뭘지 모를 감정이 생겨나는 것 같다”며, “노래를 부르며 장구를 치니 정말 재미있다”고 소감을 말한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그는 눈빛을 반짝거리며, 체험에 진지하게 참여한다.

반달, 온달, 동그랗고 네모난 쟁반 위의 꽃 ‘송편’

장구 소리와 아리랑 노랫가락이 맞을 때쯤, 삼색 송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떡 방앗간에 서 쑥, 오미자로 곱게 색을 낸 쌀가루를 찌, 설탕과 버무린 콩이나 깨를 속으로 채우면 되는 간단한 체험이다.



그런데 송편을 만드는 이들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져, 어느새 처음 배운 반달 송편과 보름달 송편은 뒷전이다.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갖가지 모양의 송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핑크빛 하트 모양에 흰 반죽으로 미니하트를 덧씌운 송편은 한입에 먹기가 아까울 만큼 사랑스럽다.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달콤한 송편에 배어 나온다.

웃가락에 몸이 들썩들썩,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전통놀이

“모야, 모”, “한 번 더 해”, “아니야, 웃만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 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을 뽐내며 배운 규칙을 설명하는 두 팀의 웃놀이는 넓은 강당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정도로 신나는 놀이판이었다.

한국어를 지도하고 있는 이병우 선생님도 웃놀이에 참여해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양반다리가 힘들어 비스듬히 엉덩이를 걸치고는 친구들이 힘껏 웃가락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함께 몸을 들썩인다.

승부가 정해지고 수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웃판주위에 둘러앉은 유학생들. 이들은 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왔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의 마음이 되어 한국의 문화를 배웠다.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 우리의 전통 고유문화를 배우는 이들의 마음 속엔 고운 한복만큼이나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로 기억될, 뜻 깊은 행사였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한가위 체험으로 한국 문화 배워요!”

— 현대외국인학교 추석 체험 행사



현대외국인학교에서는 매년 명절을 즈음해 한복을 곁에 차려 입은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이 펼쳐진다.

외국인 어린이들이 우리 고유의 명절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3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는 각 명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아이들은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송편을 나눠 먹고, 설날이면 세배를 하며 덕담을 나누는 등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한다.

현대외국인학교는 올해도 추석을 앞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를 ‘추석 기념 주간 (Chuseok Celebration Week)’로 정하고, 풍요와 나눔의 명절인 한가위의 넉넉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붓과 먹을 이용해 사군자(四君子) 중 하나인 난(蘭)을 직접 그려보는 이색 체험 행사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전통 탈춤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윷놀이, 강강술래, 투호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한국에 살지만, 진짜 한국 문화를 느껴볼 기회가 적은 외국인 어린이들에게 현대외국인학교의 ‘명절맞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특별한 선물이 되고 있다.



현대외국인학교의
추석 체험 행사를 블로그 ‘hi,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베테랑 손 끝에서 빚어내는 ‘명품 선실’

선박의 고급화, 첨단화에 맞춰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선실(Deck House)이다.

선실생산부 전장팀 42명의 사우들은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하는 모든 선박의 데크하우스 내

선실과 선교(Bridge)의 각종 항해통신, 전기 장비 설치 및 결선 업무를 맡고 있다.

각종 장비의 결선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선박 운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들은 세심한 손길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데크하우스 장비에 생명열!

선박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은 크기가 작은 선종이라도 그 범위가 최소 100여종에 이른다. 이 장비들이 모두 문제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전장팀의 몫이다. 먼저 과거 '조타실'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선교에는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의 다른 선박이나 물체를 감지해 항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레이더와 위성항법장치(GPS)를 최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어서 수면 아래의 상황을 살피는 에코 사운드(Echo Sound)와 풍향, 풍속을 측정하는 아네모미터(Anemometer) 등 안전한 항해를 돕는 장치들도 이들의 손을 거친다.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과 같은 역할을 하는 VDR(Voyage Data Recorder/항해자료기록장치)도 탑재한다. VDR은 배의 위치, 속도, 선수 방향, 교신 내용, 엔진 사용내역 등 각종 항해 기록들을 빠짐없이 저장해 해양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한다.

더불어 선박의 안전을 위해 SSAS(Ship Security Alert System/선박안전경보장치)와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선박자동식별장치)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최근에는 장비가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같은 장비여도 버



전에 따라 설치 방법이 제각각이다. 또, 최첨단 장비일수록 설치가 까다로워 선실생산부 전장팀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며 기량을 갈고 닦는다.

편의성·안전 모두 고려, 고객만족 극대화

선원들이 생활하는 바다 위의 집 데크하우스(Deck House)에는 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특별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스위치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편의성과 안전 등 많은 요소를 따져가며 정성을 다해야만 한다.

일례로 문이 두 개 이상 있는 곳에는 전등의 스위치도 양쪽에서 켜고 끌 수 있게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손 닿는 곳에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스위치를 찾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요한 전자제품들은 진동흡수장치(Anti-vibrator) 위에 설치해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오작동 등을 방지한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선주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명품 선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선실생산부 전장팀이 평균 근속 연수 15년에 이르는 베테랑 기술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있는 한 선실의 품질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올 만큼 팀원 모두가 우수한 기량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전장팀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리즈(Series) 호선 건조 시, 동일한 사수가 작업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주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선박의 빠른 건조에도 긍정적 효과를 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장팀은 2인 또는 3인 1조로 작업을 분담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의 업무와 품질에 대한 자부심은 사내에 이미 정평이 나있다. 2003년 '전장부'에서 데크하우스만 전문으로 하는 '선실생산부 전장팀'으로 특화·분리된 이후, 팀원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지금까지 선박 항해통신 관련 장비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동료애로 '무재해' 의기투합

전장팀은 단합대회, 회식, 낚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팀원들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2010년 2월에는 야구 동호회 '마구잡이'를 결성해 15명의 팀원들이 함께 땀 흘리며 동료애를 쌓고 있다.

나이가 전장팀은 매년 정기적으로 팀원들의 가족들도 함께 모이는 행사를 열어, 동료 이상의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간이 지나며 팀원들의 아내와 아이들도 삼삼오오 좋은 친구가 되는 등 전장팀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세계 최고의 선실을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다.

성태원 팀장은 매일 아침 TBM 시간을 통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즐겁게 귀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며, "무재해 작업장에서 이뤄낸 완벽한 품질은 선주에게 감동을, 우리에게 큰 보람을 준다"고 늘 강조한다. 팀원들 역시 "명품 선박 완성은 우리 손 끝에서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작업에 혼을 다하겠다"며 굳은 각오를 남겼다.

완벽한 선실을 건조하기 위해 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 전장팀은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름을 보면 군함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지난 9월 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214급 잠수함 '신돌석함'에 대한 진수식이 열렸다.

이 잠수함은 무장항일 운동에 앞장 선 '신돌석 장군'의 이름을 따 명명됐는데, 이는 일정한 기준과 규칙에 의거한 군함 작명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잠수함과 구축함 등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함정의 작명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돌석함



문무대왕함

| 잠수함

취역연도	함 명
1993년	장보고함
1994년	이천함
1995년	박위함
1996년	최무선함
1998년	이종무함
1998년	정운함
1999년	이순신함
2000년	나대용함
2000년	이억기함

정지함



잠수함, 해양 수호와 독립 운동에 공을 세운 인물 이름

잠수함에는 해양수호와 독립운동에 큰 공을 세운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붙인다. 이때, 톤수에 따라서 인물들의 활동 시기가 달라진다. 209급(1천200톤급) 잠수함인 KSS-I은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바다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의 이름을 따른다. 1993년 첫 취역한 장보고함을 비롯해 최무선함, 이순신함, 이천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214급(1천800톤급) 잠수함인 KSS-II의 경우에는 독립운동 및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붙인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안중근함과 윤봉길함 등을 비롯해, 이번에 진수식을 가진 신돌석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214급 1번함은 해군을 창설한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을 기려 손원일함으로, 2번함은 고려 시대 수군을 창설하고 남해안에서 왜구를 격퇴한 정지 장군의 이름을 따 '정지함'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3번함부터 9번함까지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제정했다. 이 중에서 여성의 이름을 처음으로 붙인 '유관순함'과 평민출신 의병장 '신돌석함' 등의 함명이 눈에 띈다.

영웅의 이름 딴 구축함, 도시명의 호위함

대함 및 대잠 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구축함은 국민들로부터 영웅으로 추앙 받는 왕이나 장수 등 호국인물의 이름을 사용한다.

한국형 이지스구축함인 KDX-III(7천500톤급)에는 우리 역사의 정치,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세종대왕과 울곡 이이, 서애 류성룡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KDX-II(4천400톤급)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문무대왕, 대조영 등을, KDX-I(3천톤급)에는 주요 전투에서 공을 세운 광개토대왕과 을지문덕, 양만춘 장군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각종 공격으로부터 함대를 방어하는 호위함은 도와 광역시, 도청 소재지의 이름을 기준으로 제정되고 있다. 1980년 국내 최초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울산함'을 필두로, '서울함', '충남함', '마산함', '전남함' 등이 대도시의 이름을 함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 구축함

취역연도	함 명
2006년	손원일함
2007년	정지함
2008년	안중근함
2014년	김좌진함
2016년	윤봉길함
2017년	유관순함
2017년	홍범도함
2018년(예정)	이범석함
2018년(예정)	신돌석함



경기함



일출봉함

조류명부터 산봉우리 이름까지, 그 밖의 기타 함정들

고속정 및 유도탄고속함의 경우 조류명을 함명으로 사용한다. 원래는 '제비'와 '기러기', '백구'로 함명을 통칭해 사용하고, 선체번호로 함정을 구분했다.

그런데 1993년 '제비'급이 모두 퇴역하고, '기러기'와 '백구'는 강한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수리'와 '검독수리'로 각 함명을 바꿔 부르게 되었다. 그 중 검독수리급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모두 퇴역했으며, 현재는 참수리급 고속정을 운영하고 있다.

참수리급 고속정의 후속 전력인 유도탄고속함(PKG)은 해군 창설 후 전투와 해전에서 귀감이 되는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1번함은 제 2 연평해전에서 순직한 윤영하 소령을 기리기 위해 '윤영하함'으로 명명했으며, 조천형 중사, 김창학 하사 등이 유도탄 고속함으로 부활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다.

상륙함은 적지에 진입해 고지를 점령한다는 의미에서 산봉우리의 이름을 사용한다. 1번함인 고준봉함을 비롯해 비로봉함, 향로봉함 등이 해당한다. 또한 독도와 같은 최 외곽 도서의 이름도 사용하고 있다.

기뢰전함은 강진을 비롯해 고령, 김포 등 중·소도시 이름을 붙이며, 구조함은 공업도시(평택, 광양)를, 잠수함 구조함은 해양력 확보와 관련된 역사적 지명(청해진)을 따 명명하고 있다. 정보함은 창조와 개혁의 추상적 의미를 지닌 명사(신천지, 신세기)를 사용한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블로그 '팔방미인' (<http://blog.naver.com/dapapr/221075207909>)



손원일함



블로그 'hi,hi'에서 다양한 군함의 사진을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최고 기술인 도전 30년, ‘대한민국 명장’ 반열에 올라”

현대중공업 오정철 기장(48세, 엔진기계 품질경영부)이 선박 기자재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8월 29일(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7년 대한민국 명장(名匠)(기계조립 직종)’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하며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숙련기술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술인 최고의 영예다.

오정철 기장은 지난 2010년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되고 2014

년 대한민국 명장과 함께 국가공인 양대 명장으로 손꼽히는 ‘국가품질명장’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에 대한민국 명장에 뽑히면서 기계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는 경북기계공고 3학년이던 1986년 지방(대구)·전국 기능경기대회 정밀기기제작(現 폴리메카닉스) 직종에서 입상하며 기계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1987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후 ‘기술 명장’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오정철 기장은 지난 30년간 건설장비와 선박 기자재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며 4천여건의 품질·공정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비용을 절감했고, 1998년부터 16년 연속으로 ‘현대중공업 제안활동 우수자 100인’에 선정되는 등 현장 개선활동에 앞장섰다.

오정철 기장은 지난 2008년부터 건설장비사업본부(現 현대건설기계)에서 엔진기계사업본부로 자리를 옮겼고, 다년간 유압기기를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박용펌프 등 선박 기자재의 생산라인을 고도화하는데 힘썼다.

특히, 선박 보조 추진장치인 사이드 스러스터(Side Thruster) 2개를 동시에 작동시키고 비정상적인 유압 상승까지 차단할 수 있는 ‘테스트 장치’를 개발해, 시운전 단계를 간소화한 것은 물론 품질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와 같이 그는 지금까지 특허 7건을 등록하고 실용실안 2건, 디자인 1건 등 총 21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현대중공업이 선진적인 산업기술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오정철 기장은 지난 2012년부터 ‘사내 현장개선 전문강사’로서 활발한 기술지도에 나서는 한편, 2015년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로 위촉돼 전국의 공업계열 학교와 중소기업, 직업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며 후배 기능인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오정철 기장은 직무발명 활동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데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끊임없는 개선활동을 펼쳐가며, 유럽 국가들이 독점하는 고부가 선박 기자재들을 국산화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명장’ 오정철 기장의 당당한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보세요!



“소소한 현장개선들이 모여 이뤄낸 기술 혁신”

현장 중심의 개선활동은 현대중공업이 기술 개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창립 초기인 1975년부터 작업자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품질분임조'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제도는 해외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선진 수준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현대중공업은 엔진기계사업본부에서만 84 개조를 두고 있는데, 최근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며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엔진기계사업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으로 전사 대표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해, 모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올해 8월에는 기계가공부 대들보분임조(분임장: 김동용 기장)가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 대회에서 동상(현장개선부문)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수상한 대들보분임조는 일체형으로 된 '힘센엔진 크랭크샤프트'(Crankshaft)의 가공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크랭크샤프트는 피스톤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엔진의 핵심 부품인데, 일체형 제품이 조립형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내는 반면 더욱 까다로운 제작 과정을 거쳐야 했다.

대들보분임조는 불필요한 중복작업들을 줄이는 등 전 가공공정

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연간 2억8천6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크랭크샤프트 중심부(Journal)에 고정장치(Chuck Jaw)와 진동저감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가공준비(Setting)' 단계를 3회에서 2회로, 오차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점 설정' 단계를 12회에서 4회로 조정함으로써 크랭크샤프트의 가공 시간을 한 대당 19.6시간에서 15.3시간으로 20% 이상 단축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었다. 이광재 기원(42세)을 비롯한 여러 사우들이 개선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이성우 팀장(49세)과 이원재 사우(39세)가 시뮬레이션 검증과 시제품 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후 김시현 기원(56세)과 박근모 사우(35세) 등이 표준화 작업과 기술 전수에 함께 동참하며, 장비 가동률은 물론 작업자들의 숙련도까지 크게 향상시켰다.

이광재 기원은 “매일 더 나은 가공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당초 기대보다 훨씬 큰 개선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공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바람 나는 분위기 속, 업무 효율도 '쑥쑥'

건강한 선박이 오랜 기간 바다를 누비기 위해서는 의장품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삼호중공업 의장2부는 오랫동안 쌓아온 업무 '노하우'와 톡톡 튀는 '에너지' 그리고 끈끈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튼튼한 선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부서장 인사말



박서린 부장

우리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저는 이 소중한 시간을 동료들과 함께 웃으면서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는 것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의장2부는 '기본에 충실하되 즐겁게 생활하는 프로의 삶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전 부서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목! 이 사우

최상호 과장은 부서 내 '다재다능'한 사우로 통합니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사우들의 기운을 북돋을 뿐만 아니라 꼼꼼한 성격으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지난 8월에는 부문 내 '숨은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상호 과장은 의장2부의 이란성 쌍둥이 아빠로도 유명합니다.

한 때, 아이들이 너무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온 탓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최상호 과장

부서 업무 소개

현대삼호중공업 의장2부는 제 2도크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의장 작업을 전담합니다. 기술과, 보온과, PE과, 관철과, 관철2과, 전장과 등 총 6개과에서 선박의 운항을 위한 핵심 공정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로 비유한다면, 'PE과', '관철 1, 2과'는 몸의 혈관 및 각종 장기에 해당하는 배관과 의장품을 선박에 설치합니다.

또 '전장과'는 각종 신경 조직인 전기 케이블과 컨트롤 장비를 선박에 설치하고, '기술과'와 '보온과'는 사람의 피부와 같은 단열재의 시공 및 도장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부서 자랑거리

'연속 수상'으로 신바람

지난 5월에는 선장22팀 김용관 조장이, 7월에는 전장21팀 김성준 조장이 '전사 제안왕'을 수상했습니다.

또 현대삼호중공업 전 생산 부서가 참여한 '전사 취급구 출품대회'에서는 이종직 반장이 켄터 샤클 압착기(Kenter Shackle Press)를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는 당사 품질명장인 전장과 박영춘 기원이 '직무능력의 달, 유공 산업포상'을 수상하는 등 연이은 신바람 나는 소식으로 부서원의 사기가 한껏 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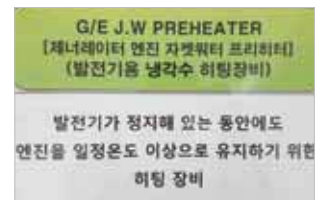


누구나 알기 쉽게! '개선 활동'

현장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 활동으로, 호선 내 각종 장비의 명칭과 사용 용도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풀이한 '장비 설명서'를 각 장비마다 부착·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작업자의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장비 파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된

호선에서 발생한 A/S Claim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자료를 호선 내 곳곳에 부착하여 품질 불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임 플레이트', 언제든 OK

호선 인도 직전, 특별한 네임 플레이트(Name Plate/명판) 제작이나 수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의장2부는 레이저 마킹기를 부서 내에 도입하여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호선 담당 사우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DAY 초음파 검사 : 너를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 손을 꼭 붙잡고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꼬물꼬물 움직임 정도만 알 수 있었던 첫 초음파 검사 때와 다를 거라며 기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뜰이나 떨리는데, 살에 닿는 검사 기계는 왜 그리 차갑던지요. 그 순간! “우와!” 남편을 뚝 닮은 평온이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동시에 탄성을 질렀어요. 이번 도전에 동기부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온아! 엄마도 힘을 낼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자 행운이다.
하지만 잉태(孕胎)의 숭고함은 곧 출산과 육아
그리고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도전이 요구된다.
현대중공업 이수연 사우(27세, 보안비상기획부)는
평온이(태명)가 찾아올 다음 달을 기다리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혼자가 아닌 둘이 움직이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때론 지칠 때도
있지만 아이의 힘찬 ‘뱃속 발 구름’에 다시금 기운이 솟는 그녀다.

좋은 엄마를 꿈꾸는
이수연 사주의 도전 모습을 블로그
‘hi,h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2DAY 모빌 만들기 : 생애 첫 장난감

가만히 누워있어야 하는 아기의 시각과 청각의 발달을 돕는 모빌을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엄마의 정성이 듬뿍 담긴 모빌을 바라보고 맑고 밝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직접 만들어보았습니니다. 흑색 모빌은 아이 눈의 초점을 맞추는데 특히 좋다고 하니 예비 아빠·엄마 분들 참고하세요!



3DAY 플라워 수업 : 우울한 기분엔 꽃과 함께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울적했어요. 낯는 것도 걱정, 키우는 것도 걱정일까요. ‘우리 엄마는 날 어떻게 키우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함이 아이에게도 전달될까 싶어 기분 전환을 위해 플라워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평온이도 꽃 향기가 좋은가 봐요. 어제보다 더 신나게 움직이네요.



4DAY 산책 : 출산까지 매일 2km

출산까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시간. 순산을 위해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저 걸음만 옮기는 산책인데도, 몸이 무거워진 탓에 제법 힘들었습니다. 선선한 날씨였지만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자주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목표한 2km를 다 채우고 나니 엄청 뿌듯했습니다.



5DAY 마크라메&드림캐처 만들기 : 엄마가 손을 움직이면

결혼 전에 친구들과 머리핀이나 팔찌 같은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전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곤 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정말 좋은 태교 방법이 되었어요. 엄마가 손을 움직이면 아이의 뇌 운동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크라메(서양식 매듭)와 드림 캐처(수제 장식)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참 예쁘죠?



6DAY 포토북 만들기 : 추억은 사진을 남기고

순간의 경험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잊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 사진첩을 만들어봤어요. 임신을 확인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곡차곡 담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평온이와 함께한 추억들을 바라보며, 늘 노력하고 도전하는 엄마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7DAY 손편지 쓰기 : 너를 기다리는 행복 여행

평온아 안녕! 너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엄마란다. 매일 대화로만 하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니 조금은 어색하지만, 네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어~ 평온이의 안녕과 그 안녕을 바라는 좋은 사람들 덕분에 엄마는 요즘 작은 천국을 누리고 있어. 무려 200일이란 시간 동안 엄마 품에서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워 평온아. 우리 아가, 내 20대의 끝자락에서 만난 평생의 생일 선물! 남은 80일 동안 엄마 아빠는 평온이가 태어날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부디 건강하게 잘 있다가 만나자 ^^ 사랑한다. 아가야♥



“다이빙 재능 기부로, 푸른 바다를 지켜요”

‘재능 기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요즘, 현대삼호중공업 잠수동호회도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보편집실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소개한다.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분주’

10년간 한결같이 바다와 소통하고 있는 바다 속 지킴이들이 있다. 바로 2007년 결성한 ‘현대삼호중공업 잠수동호회’다.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잠수동호회는 처음에는 단순히 레저 활동만을 위해 모였으나, 이제는 매년 개해제(開海祭/매해 첫 바다에 들어가는 신고식)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수중정화활동을 펼치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휴가철이 되면 방파제에 낚시를 온 외지인들로 인해 회사 부근의 바다에는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

그럴 때면 잠수동호회 회원들이 힘을 보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바다에서 건져낸다. 그렇게 시작한 수중정화활동은 이제 목포, 무안 및 인근 지역 바다로 확대됐고, 양식장 불가사리 수거, 가두리 양식장 그물 손질 등 어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수중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바다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은 물론 흔탁한 바다 속에서 부피가 큰 물체를 바다에서 끌고 나오기 위해 수준급 다이빙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현대삼호중공업 잠수동호회 회원들은 꾸준한 훈련과 정기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고급 다이빙 기술을 익

혀가고 있다.

물론 이들은 다이빙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 스쿠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다이빙 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 덕분에 현대삼호중공업 잠수동호회는 전라남도 잠수회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 8월 9일 목포해양경찰서 특수구조대를 대상으로 심해 트라이믹스 다이빙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기존 소수의 구조대원들만 심해 다이빙 위탁 교육을 받아왔던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심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 잠수동호회를 초청했던



것이다.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최대 45미터 수심에 이르는 심해 다이빙 감압 절차부터 혼합 기체 충전, 실제 물속에서 진행되는 실전 교육까지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강사로 나선 문인식 조장(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은 “지역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해경이 자랑스러워 교육을 결정했다”며, “특수구조대 잠수요원들이 심해 다이빙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해를 자유롭게! ‘트라이믹스 다이빙’

일반적으로 다이버의 권장 한계 수심은 30미터, 최대 한계 수심은 40미터다. 만일, 공기잠수한계수심(40미터)을 넘어서게 되면 공기 속에 함유돼 있는 질소와 산소의 압력이 높아져 다이버들에게 질소 마취와 산소 중독의 위험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심해에서는 마취 현상이 적은 헬륨을 추가하여 중독 위험을 줄이는 트라이믹스 다이빙 교육이 필요하다.

트라이믹스 다이빙 기술은 다이버들이 100미터에서 잠수한다고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수심 40미터에서 잠수하는 것과 같은 부분 압력으로 맞춰진

다. 이에 다이버들은 심해에서 더 오래 잠수할 수 있고, 더 깊은 수심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심해 동굴 탐사나 자초 선박 인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인 셈이다.

바다에 희망을 전하는 이들

올해 현대삼호중공업 잠수동호회에서는 또 다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바로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을 초청해 스쿠버 다이빙 체험 교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일반인들도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스쿠버 다이빙’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는 작은 생각에서 비롯됐다.

잠수동호회 회원들은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어 매번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웃사랑 실천과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실현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잠수동호회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푸른 바다에서 활약할 이들의 멋진 모습을 응원해보자.



“20억불 수출” 선박의 손, 우리가 만듭니다!

선박에 설치되는 선상 크레인(Crane on board)은 마치 사람의 손과 같다.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집어 올리듯, 선박은 크레인을 활용해 필요한 물품과 화물을 싣고 내리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선박용 크레인 개발에 성공한 디엠씨(Dongnam Marine Crane, 이하 DMC)를 만나보자.

선박용 크레인 국산화에 앞장

DMC(대표 김영채, 49세)는 경남 김해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이 회사가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선박용 크레인은 외국 기업들의 전유물이었다. DMC 역시 사업 초기에는 외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통해 크레인을 생산했다.

하지만 DMC는 1997년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용 크레인의 국산화 개발에 들어갔다. 그리고 10년 만에 갑판 및 해상플랜트용 크레인을 국내 최초로 자체 제

작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은 유조선과 화학물 운반선에 설치되는 호스 핸들링 크레인(Hose Handling Crane), 항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취항하는 선박의 하역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갑판 크레인





구명정을 내릴 때 사용되는 Davit



시운전 중인 호스 핸들링 크레인



디엠씨 봉사활동

(Deck Crane), 메인 엔진의 유지보수를 위한 엔진 룸 크레인 (Engine Room Crane), 항해 중 선원들의 생필품 등을 선적하는 프로비전 크레인(Provision Crane), 컨테이너선에 설치되는 모노레일 크레인(Monorail Crane), 리그선, 드릴십, FPSO 등 해양 선박 및 구조물에 설치되는 해양플랜트용 크레인(Offshore Crane), 긴급 재난시 구명정(구조정)을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되는 대빗(Davit) 등 다양한 크레인을 만들고 있다.

이후 DMC는 선박용 크레인뿐만 아니라 갑판기(Deck Machinery), 엔진 룸 위벽(Engine Room Casing), 연돌(Funnel) 등 사업을 확장하며 다양한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사업 영역 확장과 함께 2005년에는 제2공장을 신축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크게 확충하고, 2곳의 자회사를 설립하며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꾸준한 기술개발로 불황 이겨내

DMC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꾸준한 기술 개발에 있다. 이들은 2005년 설립된 기술연구소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표준화된 작업이라도 끊임없이 공정을 개선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DMC는 숏한 경영위기 속에서도 회생의 발판은 '기술'이라는 믿음 아래 연구 개발에 힘을 쏟아 부었는데, 특히 2010년부터 3년간 내리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가용 인력의 30%를 연구 개발에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제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2013년에 1천30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수주가뭄으로 글로벌 조선 시황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2015년 '7천만불 수출탑', 2016년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DMC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해 설계부터 구매, 생산, 시운전, A/S까지 전 공정의 데이터를 관리해 업

무의 효율성과 우수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DMC는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의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09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되는 등 조선 기자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굳건한 관계 맺어

DMC와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연은 2004년 현대미포조선에 갑판 크레인을 납품하며 시작됐다. 30년간 조선·해양 크레인을 생산해 온 DMC의 경험은 단시간에 현대미포조선과 확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충분했다. 이후 DMC는 2005년 현대중공업, 2006년 현대삼호중공업과 거래를 시작했다.

이에 DMC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도 69%, 2015년 77%, 2016년 80%로 증가했다. DMC는 김해 본사를 중심으로 영암 및 아산에 자회사를 두고, 울산 온산에도 부지를 확보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영채 대표는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명품 크레인을 만들어 내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 선박용 크레인 및 조선업 기자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DMC와 우리 그룹의 인연이 앞으로도 끈끈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디엠씨 본사 전경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소개하는 '세계를 가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사보와 함께 즐거운 세계 여행을 떠나 보세요

역사 앙금 딛고 미래로 경쟁과 협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바닷길, 하늘 길 어디로도 접근성이 좋아 단기 여행을 위한 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또한 전통적인 조선업 강국으로 현대중공업과는 오랜 파트너인 동시에 조선 관련 기술 개발 및 수주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경쟁자다.

국내 조선업계를 위협하는 일본의 추격

1972년 미포만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한 현대중공업은 모든 임직원이 현대정신으로 무장하여 1987년 일본 다이아몬드지가 선정하는 조선부문 세계 1위 기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전통의 조선업 강자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적인 조선회사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다.

여기에는 일본이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제한된 인력과 시설을 유지했던 것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1970~1980대에 단행한 구조조정으로 일본은 조선업 활황에 대한 수요를 대비하지 못했다. 그 사이를 대규모 도크, 일본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메워나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의 핵심 설계인력을 받아들여 조선 기술 개발에 앞장섰다.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여러 조선사들의 눈부신 약진은 그야말로 일본 조선업의 쇠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 조선사들은 합병 및 공동 출자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체제를 정리하고, 선가를 낮추면서 부활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엔저와 기술력에 힘입은 일본 조선업체들이 경쟁력을 강

화하며 대량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는 일본 조선사들이 한국과 중국을 제치고, 수주 잔량에서 세계 1위, 올해 1월에는 세계 2위에 오르는 등 효율적인 도크 및 인력 운영의 효과를 보고 있다.

오랜 파트너십으로 수주 기쁨에 단비

이처럼 일본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조선사와 경쟁하고 있는 숙명의 라이벌이지만, 한 편으로 오래된 파트너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은 1973년 일본 K-Line에 인도한 VLCC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Japan Line, MOL, 미쓰비시 등의 선주사에 총 120척의 선박을 인도한 바 있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하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가 일본의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선박은 161척으로 늘어난다.

올해 2월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일본 선주사 후쿠진키센으로부터 5만톤급 소형 유조선 1척을 수주하는 등 자국 조선소가 아닌 현대미포조선에 선박을 발주함으로써 조선업계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이와 같이 오랜 단골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는 수주절벽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올해 4월에는 일본 지바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산업 관련 전시회겸 국제회의인 가스텍(Gastech)이 열려 현대중공업그룹이 참여하기도 했다. LNG-FSRU, LNG-FPSO, LNG연료 추진 선박 등 첨단 기술을 집중 홍보하며, 신규 수주 및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도시의 변화가, 붉게 물든 절경까지

일본의 수도이자 대표적인 관광지는 현대중공업의 지사가 위치해있는 동경이다. 수많은 마천루와 바쁘게 이동하는 인파 등 전형적인 대도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과 새로운 것을 보고자 여행을 떠난 사람이라면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최대의 변화가인 신주쿠와 젊음의 거리 하라주

쿠를 방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쇼핑의 천국인 이 곳에서는 한국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동경 시내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스카이트리 타워도 빠질 수 없는 명소다. 전파탑으로는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고, 밤에는 조명이 켜져 야경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도쿄의 서쪽 편으로는, 봄에는 흐드러지는 벚꽃으로, 가을에는 불타오르는 단풍으로 유명한 오사카가 있다. 일본 3대 성 중 하나인 오사카성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관람차인 덴포잔 대관람차도 만나볼 수 있다.

오사카 근교에 위치한 교토는 일본 천년의 고도인 만큼, 품격 있는 일본의 옛 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특히 '기요미즈데라(청수사)'는 절벽에 지어진 사원인데, 탁 트인 전망에 사계절 풍경이 절경으로 이름 높다. 그 중에서도 가을 단풍 시즌이 돌아오면, 일본 전역의 현지인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다. 하지만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한번쯤 볼만한 압도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일본에서 보내온 이야기



일본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양의 미덕이 존재한다. 현대중공업 동경지사에 근무하는 **박지은 과장**(39세)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격식과 예의를 중시 여기는 일본의 문화를 알아보자.

신기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본의 문화가 있나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온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 여행에 앞서 한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남탕과 여탕의 위치를 바꾸는 '이레카에'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낯설지만 일본에는 합법적으로 남녀 혼탕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남탕과 여탕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중 목욕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인만큼, 온천 여행을 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레카에'가 시행되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 곤란하거나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겐토시마스!"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면 보통 긍정적인 ნัย상으로 받아들이기 마련인데요, 'NO'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일본 문화에서는 이 말이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일본의 '겐토시마스' 문화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만난 고객사의 남자 직원이 마침 나이와 취미가 비슷해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보고 싶어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초대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상대방은 확실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계속 '상황을 보겠다'고만 이야기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의미가 완곡한 거절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상황을 봐서 함께 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적인 관계에서 거절의 말을 할 수 없어 돌려 표현한 상대의 고충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일본의 명소와 먹거리를 추천해주세요.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는 매년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등 대도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죠.

하지만 북적거리는 도심을 벗어나 일본의 넓은 자연을 느껴보고 싶다면, 온천 마을로 유명한 하코네 지역을 추천합니다. 도쿄에서 기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어 도쿄에 머물며 당일 여행으로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코네 마을에서는 날씨가 쾌청하다면, 후지산을 배경으로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천에 들러 여행의 피로도 풀고, 온천물로 삶은 달걀(온센다마고)을 별미로 먹으면 특별한 여행이 될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눈부신 성장 땀방울!

10~40년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사회와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10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2007.10



▲ 2007년 개최한 현중가족 한마당큰잔치



▲ 현대미포조선 도장1공장 증축



▲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대 LPG운반선

2007년 10월 현대중공업 사보는 독서의 장점과 독서를 즐기는 사우들의 이야기 등을 실었다. 먼저 한국문학의 순수 서정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순원이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었던 풍경을 묘사한 에세이가 소개됐다.

또 730여명의 사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응답자의 70%가 넘는 사우들은 매월 1~2권의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읽는 책의 종류로는 문학·에세이가 가장 많았고, 경영·경제 도서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묻는 질문에는 국내 작가 이문열, 이외수가, 외국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무라카미 하루키 등이 상위에 올랐다. 아울러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 집안 어디서든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사우 가족이 소개됐다. 이 사우의 TV를 거실에서 몰아낸 뒤, 한동안 온 가족이 TV 금단 현상에 시달렸지만 몇 개월이 지난 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으며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고, 가족들간의 대화도 늘어나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달 사보에는 5화째를 맞은 현중가족 한마당큰잔치의 개최 소식도 실렸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35주년을 맞아 그간 구축한 노사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한마당큰잔치를 열었다. 행사에는 임직원 및 가족 등 3만여명이 참석했으며, 무르익은 가을밤의 열기는 10여분간 진행된 화려한 불꽃놀이로 막을 내렸다.

이달 중순 현대미포조선은 도장1공장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갔다. 4개월여 동안의 공사 끝에 증축이 완료된 도장공장 1,2P 건물은 남쪽 도로 방향으로 14미터가 확장돼 도장 공정의 생산성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달 12일 현대삼호중공업은 길이 225미터, 폭 36.6미터, 높이 22미터의 제원을 가진 8만2천입방미터급 세계 최대 LPG운반선을 덴마크의 A.P.몰러(MOLLER)사에 인도했다. 이 선박은 지난해 8월 강재절단을 시작으로 건조에 착수해, 다음해 2월 도크 건조, 5월 진수, 9월 시운전 등을 거쳐 최종 인도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인도를 시작으로, 탱커와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이어 LNG운반선, FPSO 등 다양한 선박을 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

1997.10

1997년 10월 사보에는 컨테이너크레인 1기와 트랜스테이너 9기가 제작·설치되고 있는 부산항 항만 공사 현장 방문기가 소개됐다. 현대상선의 전용부두로 사용될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당시 현장소장을 비롯해 총 4명의 사우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항차(航次) 작업이 모두 완료돼 크레인의 현장 설치 및 시운전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었다.

현대중공업 사우들은 하루 8시간씩 이어지는 크레인의 내구력 시험과 하역 작업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인도를 계약기간보다 보름 정도 앞당기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마무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1997년 10월 현대미포조선은 국제 품질규격인 'ISO 9001'인증을 통과했다. 현대미포조선은 격화되는 품질부문의 국제 경쟁 속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사업 다각화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1996년 하반기부터 인증 획득을 준비해왔다. ISO 인증 획득을 위한 최종심사는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영국의 LRQA에서 5명의 심사원들을 파견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다.



▲ 현대중공업이 제작·설치한 부산항 항만의 컨테이너 크레인

1987.10

1987년 10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건설하는 남극 한국과학기지 건설단의 출항식이 실렸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자원보고로 각광받고 있던 남극에 8개동 420평의 첫 해외 상설기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현대중공업은 기지의 해상운송 및 설치를 담당하게 됐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의 이미지를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극지 공사에서 기술축적을 이뤄 공신력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3천번째 수리선 입거를 기념하기 위해 울산 다이아몬드호텔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3천번째 수리선인 '택스코 미시시피호'의 전 승무원과 현대미포조선에 입거 중인 선박의 공무감독, 울산 주재 선박검사관, 해운·언론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음용기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3천번째 선박 수리를 계기로 선주사들에게 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수리조선소가 될 것을 다짐했다.



▲ 현대중공업 사보 1987년 9·10월호

1977.10

1977년 10월 현대중공업은 간부 사원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저명 인사를 초빙하여 특별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에 나선 서울대 류달영 교수는 사우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난관을 극복해 조선입국이라는 대과업을 성실하게 이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달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장주영 창업자의 임직원 훈시전문이 실렸다. 창업자는 사내 체육관에서 1천500여명의 임직원에게 기술의 향상, 회사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자성(自省)하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분야별 담당, 중역책임제를 실시해 모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계획적인 업무를 수행하자고 전했다.



▲ 현대중공업 사보 1977년 10월호

유쾌한 연예인(?) 부부, 행복 가득한 일상

이제 인생 2모작,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걸까. 현대중공업 퇴직 후, 남다른 제 2의 인생으로 UBC 울산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현대중공업 안전환경부에 근무했던 최종석 씨(65세)와 그의 아내 박순희 씨(54세). 이들 부부의 별난 일상을 소개한다.

최종석 씨는 현대중공업 근무 당시 사내 교통안전을 담당했다. 아직도 문화관 사거리에서 절도 있게 교통수신호를 보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우들이 있을 만큼, 최종석 씨는 건강한 체격의 유명인사였다. 그는 2013년 영화 '친구2'에 출연해 1960년대 활약하는 일본 야쿠자 역할을 멋지게 소화하기도 했다. 최종석 씨는 현재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연기분과 배우로 등록이 되어 있는 명실공히 배우다.

2012년 현대중공업을 퇴직한 최종석 씨는 울산 동구의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 입사했는데, 올해로 입사한 지 4년째가 되었다. 그는,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돼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석 씨의 새로운 도전은 끊이지 않는다.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는 그는, 인터넷 카페 '하마 최'를 운영하며 결혼식을 올리는 현대중공업 사우들의 사진 촬영 및 인화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양로원과 경로당을 찾아가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하며 재능 기부 봉사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아내인 박순희 씨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남편과 함께 재



능 기부 봉사에 나서고 있다. 그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평범한 주부 이면서, '금나래'라는 예명으로 활약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다. 그녀의 제 2의 직업은 동구에 있는 여러 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무대 위에 트로트 음악이 흥겹게 흘러나오면, 초대 가수 금나래 씨는 한껏 리듬을 타며 어르신들과 어울린다. 매니저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 최종석 씨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보약 같은 친구야'를 시작으로 '울고 넘는 박달재' 그리고 금나래 씨의 대표곡인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 등 10여곡이 넘는 노래를 1시간 가까이 부르는데,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뛰어난 무대 매너에 객석에서는 진한 박수가 터져나온다.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가수분

과로 등록돼있는 박순희 씨는 '가수 금나래'로 여러 무대를 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

언제, 어디서든 흥겨운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박순희 씨와 그녀의 든든한 매니저 최종석 씨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다양한 재능 봉사로 지역의 이웃들과 즐거움을 나누며, 남다른 제 2의 인생을 살고있는 이들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본다.

취재 이승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신사의 스포츠 ‘펜싱’을 즐긴다!

지난해 리우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박상영 선수가 기적처럼 역전해 승리를 거두는 순간을 많은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당시 10:14의 스코어로 상대가 1점만 더 내면 경기에서 지는 상황에서, 박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민들의 마음 속에 큰 감동을 심어준 펜싱을 울산에서 즐기는 사수가 있어 사보편집실에서 만나보았다.

올해 3월부터 펜싱을 시작한 현대미포조선 자재구매부 이강희 대리(37세)는 요즘 펜싱의 매력에 푹 빠졌다. 처음에는 올해 초 결혼한 아내의 권유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하루 3~4시간씩 시간을 보내며, 펜싱 실력 향상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 대리는 펜싱의 매력을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 표현한다. “찰나의 순간에 상대의 수를 피해 점수를 내고, ‘삐익~’하는 버저(buzzer) 소리가 들리면 온 몸이 짜릿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펜싱이 고도의 집중력과 효과적인 경기 운영 전략이 필요한 스포츠이지만, 운동량도 만만치 않음을 강조한다.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상대를 향해 찌르고 돌진하며 3분 정도만 대련해도, 마치 100미터를 전력으로 달린 것처럼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운동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강희 대리는 스스로 펜싱의 즐거움을 만끽할수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펜싱을 즐길 수 있을지 고민한다며, “펜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귀족 스포츠라든가, 엘리트 선수들만 배우는 고



급 스포츠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펜싱은 적은 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2~3달만 배우면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가 펜싱을 배우고 있는 울산서여자중학교에는 초등학교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호인들이 펜싱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신사적인 경기 규칙과 함께, 절묘한 기술로 강한 힘을 이길 수 있는 펜싱의 특성 때문에 나이나 성별, 체격 조건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반년 조금 넘게 배운 그도 베테랑 겸객인 아내나 다른 동호인들과 톱툰이 대련을 하며, 펜싱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니 말이다.

이 대리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을 목표로 부단한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

타깝게도 여름휴가 때 무릎을 다쳐 출전 일정을 다소 늦추게 됐다고 한다.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를 보고 있으니 전국대회 우승까지 한 그의 아내와 대등하게 겨룰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마을의 발전을 함께 고심한다!

최근 울산 동구 서부동에 지역 주민들이
도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생겨,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동 도시재생대학

참여 대상 서부동 18동~19동 일원 주민 누구나
날짜 및 시간 8월 24일 ~ 11월 2일(1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남목2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홀

참여 방법 교육 당일 방문 신청 및 수시 등록 가능
문의 052-209-3808



<강사> 과거에는 종이로써 어떤 것을 사용했습니까?

밀가루 포대, 문종이, 한지, 누런 갱지, 신문지..

지역주민들



<강사> 그러다가 현재는요?

화장지, 벽지, 이면지, 흰 A4용지..

지역주민들



<강사> 그렇죠, 그 이외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노트처럼 메모하고 기록하고 저장해서 오래 오래 보고 있지요.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물, 불, 종이, 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 마을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둘러 볼까요?

세 탁자에 각각 7~8명의 주민들이 앉아 주제에 대한 열띤 토의를 시작한다.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이날은 교육 시작 3주차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마을의 변천 과정을 둘러보고, 현재의 장단점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도시재생대학'은 동구청에서 지속적인 도시 재생 사업의 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은 남목 2동 즉, 서부동 18동~19동 일원의 주민들이다. 10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마을의 터줏대감 할아버지부터 새롭게 가게를 열어 장사를 시작하는 아주머니, 막 동구에 일자리를 잡아 전세로 이사 온 새댁과 회사원 등 다양한 구성의 주민들이 참여해 마을이 깨끗하고, 범죄도 없고, 활기찬 경제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아이디어를 낸다. 어찌면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해왔던 마을의 문제들을 주민들이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관련 전문가와 행정기관에 전달돼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력을 보완하여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전문가, 행정기관과 힘을 합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은 물론 서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삶의 거점이 되는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남구는 국·시비 115억원과 구비 35억원 등 150억원을 투입, 3개의 동굴을 연결해 164미터 길이의 한 개 동굴과 계절별 이벤트 공간을 만들었다. 동굴 내·외부에는 태화강 산책로와 바로 연결되는 통로, 지하 광장, 지상 광장, 인공 폭포를 만들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개장 이후 총 9일간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무려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흔히 동굴하면 수 억 년 동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회암 동굴을 연상하기 마련이지만, 남구에 조성된 동굴피아는 생각 속의 동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일제 강점기 때 울산시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만든 수탈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인공동굴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만들어진 4개의 동굴은 삼산동 일대에 민간 비행장을 군용으로 개조한 후 일본 군인들이 진지로 사용하고, 군대보급물자 보관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 민간인 강제 부역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역사 교육부터, 동식물 생태계 체험까지

남구는 이 동굴을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담고 많은 이들이 즐겁게 이용할 새로운 관광 문화공간으로 멋지게 탈바꿈 시켰다.

제 1동굴은 동굴의 옛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돼 있는 전시 공간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보급물자 창고로 사용되었고, 광복 후 20년 동안은 불법 동굴주점으로 사용되다가 철거된 후, 한 때 동굴의 일부가 무속인의 법당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제 2동굴은 울산의 생태계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전시했다. 귀신고래 찾기, 시시각각 색이 달라지는 미러 터널 등 관람객의 소소한 즐거움을 더한다.

제 3동굴은 디지털 아쿠아리움 체험 공간으로 마련됐다. 직접 그린 물고기가 아쿠아리움의 대형 스크린을 헤엄쳐 다녔다. 아이들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동굴로 불러들인다.

동굴 밖으로 나오면 계절별 이벤트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현재는 귀신의 집이 운영되고 있다.

선선해진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방문해보면 좋은 나들이가 될 것이다.

취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방치된 동굴, 관광명소로 ‘대변신’

울산 남구 남산 아래 방치되어 있던 4개의 동굴이 동굴문화단지로 새롭게 조성되어 지난 7월 말 개장했다.

태화강 동굴피아

운영시간 매일 오전 9시~ 저녁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성인 2천원, 어린이 1천원

문의 052-226-0961





낭만 100%, 감성 충전 여행

무르익은 가을, 높아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에 바깥 나들이하기 딱 좋다.

전국 각지는 먹거리, 문화,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축제들로 북적거린다. 올해는 최장 열흘의 긴 추석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각자의 취향대로 축제를 선택해 가을의 낭만을 물씬 느껴보자.



황금연휴 나들이에 딱, '진주남강유등축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남강과 진주성 일원에 형형색색 7만여개의 유등이 물, 불, 빛으로 환상적인 도시 야경을 연출한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남강과 진주성 축석루, 유등을 배경으로 한 최첨단 영상 콘텐츠가 도입돼 전통적인 유등과 현대적인 빛이 조화를 이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전통 세시풍속을 접목해 즐길 거리를 더했다. 소망등 달기, 유등 띄우기 행사는 물론 화전놀이, 그네뛰기, 씨름, 강강술래 등 추석연휴에 맞춰 고향을 찾아온 귀성객들이 한국의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행사를 마련했다.

한편, 진주의 유등 놀이는 임진왜란의 발발 당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적은 병력으로 진주성을 침공한 2만 왜군을 무찌른 진주대첩에서 기원하고 있다.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고, 성 밖의 의병 등 지원군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진주성 내에 있는 병사들과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풍등을 띄운 것이 그 시초다.

이후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유등을 띄웠는데, 이것이 진주남강유등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간 2017. 10. 1(일) ~ 2017. 10. 15(일)

장소 진주남강 일원

참가비 성인 1만원, 학생(만 7세~18세) 5천원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움, '서울세계불꽃축제'

불꽃을 통한 희망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9월 30일 딱 하루 여의도 한강공원일대에서 세계불꽃축제가 펼쳐진다.

매년 다양한 불거리로, 약 100만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이 축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불꽃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가을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화려한 불꽃과 영상, 음악, 레이저 연출이 결합돼 오감이 만족된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불꽃쇼가 종료된 후에는 메인 무대에서 전문 DJ들과 함께 음악 축제를 진행한다.

휘황찬란한 불꽃이 그려내는 장관은 마치 한편의 영화 같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축제 대어섯 시간 전부터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다.

교통 체증으로, 먼 발치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는 소리만 듣는 낭패를 피하려면, 여의도 63빌딩, 노랑진 수산시장 주차타워, 노들섬 갈대숲, 선유도 공원, 이촌 한강공원, 대학로 낙산공원 등 숨겨진 불꽃 축제 명소를 찾아가보자.

이마저도 어렵다면, 원효대교, 마포대교, 한강대교 등지를 노려보자. 불꽃의 화려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핫 플레이스(Hot Place)다.

기간 2017. 09. 30(토) / 장소 여의도 한강공원



그윽한 향이 솔솔, '강릉커피축제'

백두대간과 동해안의 절경이 펼쳐지는 강릉은 사계절 어느 때나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로 손꼽힌다. 여기에 푸른 바다를 마주보고 그윽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강릉은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 곳에 커피 1세대라 불리는 커피 명인과 커피 공장, 커피 박물관, 커피 농장, 커피 거리가 몰려있음은 당연한 이치다. 매년 10월이 되면 강릉은 세계 각국의 커피를 맛보러 온 커피 애호가들로 북적인다.

특히 젊은이들의 낭만 여행지로 만든 안목해변의 '커피 거리'를 중심으로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e-zen) 일원에는 매년 강릉커피축제가 열린다.

강릉커피축제는 1980년대부터 커피 명인들이 잇따라 터를 잡고, 도심 전역에 500여개의 커피 전문점이 운영되면서 2009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올해로 개최 9회째를 맞아 이번 축제에서는 100인의 로스터와 바리스타가 만든 갖가지 커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고, 노천 카페촌에서도 저마다 행사를 열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이다.

세계의 커피를 맛보며 한 잔의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잊지 말고 강릉으로 떠나보자.

기간 2017. 10. 6(금) ~ 2017. 10. 9(월)

장소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e-zen) 일원



정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골목길

최근 경주 황리단길에 젊은 감성을 자극하는 카페와 이색적 취향의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황리단길'은 실제 지명이 아니라, '경주 황남동'과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을 합친 합성어로 황남동 내남사거리에서 주민센터까지 이어지는 1차선 도로를 말한다.



'낡은 골목'에서 '뜨는 명소'로 탈바꿈

'경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대릉원 등 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신라시대 유적지일 것이다. 신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천년 고도 경주는 학창시절 수학 여행지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역사 도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낡고 오래된 건물의 지붕과 뼈대를 살리고 현대적 느낌으로 리모델링한, 개성 넘치는 상점들이 황남동 일대에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또, 얼마 전에는 인기 TV 방송 프로그램에 이 골목의 화려한 변신이 소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실 대릉원 인근에 위치한 황리단길은 그 동안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다. 그 때문에 상권이 침체되고, 건물이 낙후되었지만, 60~7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예스러운 낭만을 간직했기에 반전 매력이 가득하다.

지금 이 곳은 옛 것과 새 것이 섞여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리움의 향수를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세련된 젊은 감각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청춘들이 꽃핀, 인기 이색 상점들

황리단길에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상점들이 속속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옥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업과 식당, 카페, 주점, 제과점 등의 요식업, 그 밖의 한복 대여점과 서점, 꽃집과 사진관, 선물가게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영업 중이다.

특히 이 곳에서는 업종별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호를 선보이

며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가게들이 많다. 동음이의어 등 언어유희가 느껴지는 '경주 한복판'이라는 이름의 한복 대여점을 비롯해 어디에나 있는 서점 어디에도 없는 서점은 줄임말로 '어서어서로 통한다. 또 소시지 굽는 친구라는 뜻을 가진 수제 소시지 가게 '소곱친구' 등 독창적인 상호명이 인상적이다.

한편, 새 단장을 준비하며 공사 중인 점포들도 눈에 띄는데, 이는 황리단길의 새로운 변신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뜻한다. 다양한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가며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황리단길에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

경주 황리단길, 어디까지 가봤니?

| 그림책서점 소소밀밀



간판을 싣고 있는 예쁜 자전거 뒤로 대문을 살짝 엿보니 아담한 마당에 장독대가 보이고, 시골 옛집을 개조한 단층 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성긴 곳은 더욱 성기게, 뽀뽀

한 곳은 더욱 뽀뽀하게'라는 뜻을 가진 소소밀밀은 느긋한 글자가 소소 아줌마와 꼼꼼한 그림작가 밀밀 아저씨의 그림책 서점이다. 1호점은 황성동에서 2호점은 황리단길에서 운영 중이다.

마음씨 좋은 밀밀 아저씨가 아이의 나이를 물어보고, 연령대에 맞게 읽을 만한 책 한 권을 꺼내준다. 서점 한 쪽에 마련된 밀밀 아저씨의 작업공간 구경도 하고, 그림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소소밀밀은 단순히 그림책을 파는 서점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 같다.

주소 경주시 원지길 20번길 26(1호점), 경주시 포석로 1092번길 16(2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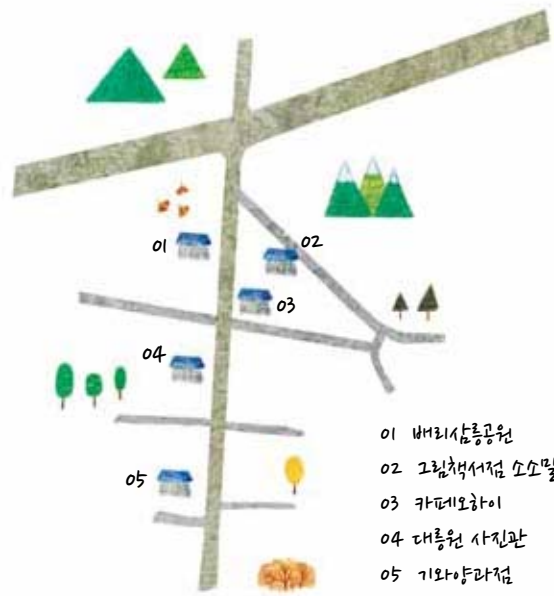
| 기와양과점



크로와상이 맛있는 한옥 베이커리 '기와양과점'은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의 빵만 구워 판매하기에 오픈 시간 전부터 줄을 서 기다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고풍스러운 기

와를 이고 있는 전통 한옥에서 서양식 빵과 커피를 파는 컨셉이 언밸런스한 재미를 선사한다. 한국적인 멋에 이국적인 맛을 더했다고 할 수 있다.

주소 경주시 금성로 182번길 17-4



- 01 배리삼릉공원
- 02 그림책서점 소소밀밀
- 03 카페오하이
- 04 대릉원 사진관
- 05 기와양과점

| 카페 오하이



황리단길과 대릉원의 전경을 한 눈에 내다볼 수 있는 루프탑 카페로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능 뷰'를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옥상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한낮의 분위기도 물

론 좋지만, 노을 지는 풍경이나 은은히 조명을 밝히는 야경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주소 경주시 포석로 1070

| 대릉원 사진관



이곳은 아날로그적 감성이 물씬 풍기는 흑백 전문 사진관이다. 지금은 쉽게 보기 힘든 필름 카메라, 구형 텔레비전과 타자기와 같은 소품으로 내부를 꾸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촬영비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담고 싶어하는 이들로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룬다.

주소 경주시 포석로 1081

| 배리삼릉공원



지역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선물가게 '배리삼릉공원'에서는 경주만이 가진 특색들을 담백하게 표현한 기념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엽서와 향초, 파우

치, 액세서리 등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통해 경주의 문화를 느껴보자.

주소 경주시 포석로 1083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트

복고 열풍, 추억의 ‘롤러장’

최근 7080 문화의 복고 열풍을 타고 잊혀졌던 ‘롤러장’이 다시 돌아왔다. 7080 세대라면 주말마다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롤러장’에서 신나는 팝송에 맞춰 ‘롤러’를 타던 옛 추억이 생생할 것이다.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재탄생 한 롤러스케이팅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블로그 'hi, hhi'에서
추억의 복고 문화를 즐겨보세요!

무료 강습으로, 롤러 ‘첫 경험’

록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이곳은 대송동에 위치한 ‘Roll,Ja(이하 롤자)’ 롤러스케이팅장. 100년 전통을 가진 사카고 제품의 롤러스케이트를 보니, 추억 속 롤러스케이트를 만난 기분이 든다.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롤자’는 조명부터 인테리어 벽화까지 화려한 게 특징이다. 과거 90년대 롤러스케이팅장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입장하는 순간부터 강렬한 록 음악과 쏟아지는 레이저 조명에 압도된다.

자신의 발 사이즈에 맞춰 롤러를 신고 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많은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다. 처음 롤러스케이트를 접하는 초보자부터 바람처럼 달리는 베테랑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함께 어울려 즐긴다. 간혹 호기심은 있으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본 적 없는 고객에게는 직원들이 무료로 강습을 진행해 주기도 한다.

간단한 음료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운지도 마련돼 있어 편리하다. 평일과 주말의 입장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기를 원한다면 ‘롤자’를 방문해보자.



‘Roll,Ja’ 롤러스케이팅장

주소 울산시 동구 대송8길 17

이용 시간 평일 오전 11시 ~ 오후 10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10시

가격 성인 1만원, 소인(초등학생) 8천원 / 기본 2시간 이용

문의 052)252-5992





야간 데이트, 가족 나들이 장소로 딱!

롤러스케이트장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다양한 즐길거리가 야외 공간에 마련된 '일산랜드'를 추천한다.

롤러스케이트 장을 야외로 옮겨 놓은 '일산랜드'에는 국산으로 제작한 롤러스케이트가 준비돼 있다.

이 곳은 새벽까지 운영해 늦은 시간에도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야외에 위치해있는 만큼 비가 오는 날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나서는 범퍼카, 방방, 정글짐, 오락실 등 멀티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가득해 아이들과 나들이 하기에 알맞다.

한편, 이 곳은 6세 이상의 어린이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장비가 잘 갖춰놓았다.

자녀만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경우, 롤러스케이트

를 타지 않는 부모도 입장할 수 있게끔 배려해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가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떼며, 롤러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스마트 폰과 컴퓨터가 없던 시절, 롤러스케이트장은 청소년들이 찾는 가장 핫(Hot) 한 공간이었다. 화려하게 쏟아지는 조명 아래, 팝송 음악이 뽕뽕하게 흘러나오고 실내는 사우나처럼 뜨거워도 친구들과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달릴 수 있던 것만으로 좋았던 것이다.

롤러장을 누비며 신나게 달렸던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한층 쾌적하게 업그레이드 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색 데이트 또는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일 것이다.



'일산랜드' 롤러스케이트장

주소 울산시 동구 일산진 1길 24

이용 시간 오전 10시 ~ 익일 오전 4시까지

가격 성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 기본 2시간 이용

문의 052-233-4445

취재 이승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지금은 몸에 좋은 ‘전통차’ 마실 시간”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선선해지는 요즘,
커피 대신 전통차 한 잔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전통차의 따뜻한 온기가 더위에 지쳤던 심신에 활기를 가득 불어넣어줄 것이다.

도심 속, 전통차 한 잔의 여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부근에 자리 잡은 '산들 소리'는 도심 속에서 호젓하게 자연을 느끼면서 직접 담근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다.

오룡산을 뒤로 한 3층 단독 주택이지만, 1층 실내는 원목을 이용한 전통적인 인테리어에 현대적인 소품들을 곳곳에 배치해 편안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준다.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특유의 쌍화차 향기는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 곳에서는 차(茶)의 효능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메뉴를 고를 수 있다. 솔잎차, 황차, 꽃차, 오미자차, 뽕잎차, 쌍화탕 등 손수 야생에서 채취한 재료로 직접 담근 차들이 다양하다.

차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찻잔도 각기 준비돼 있어 눈길을 끈다. 또, 차와 함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죽, 가래떡, 인절미, 군고구마 등의 요깃거리도 마련돼 있다.

주문을 마치고 아늑한 곳을 찾아 자리에 앉았다.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면서 차 한잔하면, 참 운치 있고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주인장이 추천하는 차가운 '솔잎차'는 청량함이 일품이다. 솔잎차는 장마철이 지난 이후부터 9월 초까지 해남, 진도 등 깊은 산속에 서식하는 적송의 참솔 가지에서 솔잎을 직접 채취해 3일을 씻어내고 효소를 만들어 발효방에서 2~3년 동안 발효를 시킨 후에만 손님들에게 내어준다.

입안이 깔끔하게 정화되는 느낌을 줘 탄산이 주는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여기에 은은하게 퍼지는 솔잎 향을 맡으면 정신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

전통차와 함께 달콤한 조청과 말랑하게 구운 가래떡이 서비스로 나온다. 지인의 친정엄마가 시골에서 가마솥에 불을 때 엿기를 끓여 만들어 준 귀한 조청이라 한다. 잘 구워진 가래떡을 조청에 듬뿍 찍어 먹으면, 차 맛의 여운이 더욱 깊어져 전통차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했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도란도

란 담소를 나누보자. 허한 기운을 보양해주는 전통차 한 잔이면, 쌓여있던 긴장과 스트레스도 '스르르' 녹아 사라질 것이다.

최재주 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porter

건강을 담아낸 '한 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산들 소리차(쌍화탕)'다. 대추, 밤, 은행, 잣 등 12가지의 국내산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약처럼 진하게 끓인다. 주인장의 인심과 정성이 함께 담겨 따뜻한 돌 잔에 나온 쌍화탕은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추차'는 최상급의 대추를 구해와 오랜 시간 직접 고아내 그 맛이 남다르다. 설탕을 넣지 않고 대추 본연의 맛을 잘 살렸는데, 여기에는 재료와 물의 비율, 끓이는 온도와 고아내는 시간 등 주인장의 특별 비법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 '죽처럼 보일 만큼 걸쭉한 갈색 빛의 대추차는 한번 맛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산들소리'

주소 전남 목포시 후광대로105번 안길 2

가격 쌍화탕 7천원, 차와 발효음료 6천원 등

영업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2시) ~ 오후 10시

문의 061-283-9400

전통찻집 '낙원'

주소 울산 중구 내오산로 99-1

가격 인삼죽 8천원, 황제보원탕 7천원, 대추차 6천원 등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문의 052-222-9733

가을 산책이 건네는 위로

몸을 축축 늘어뜨리던 무더위가 언제 왔었냐는 듯 지나가 버리고 온 몸을 살살 간질이는 시원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찾아오는 가을이다. 하늘은 제 색을 찾아 파랗게 빛나고 바람도 가을의 빛을 머금은 것 같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무궁화 정원'

뜨거운 햇볕이 무서워 바깥출입을 자제하던 계절이 지나가기도 전에 몸은 본능적으로 길을 따라 나선다. 저절로 발걸음이 놓이는 데로 걷고 싶은 만큼 걸어보니 힘든 일상에 쫓겨 피로에 지친 몸이 에너지를 얻는다. 천천히 걷는 데는 새롭게 꾸민 태화강변 길이 단연 으뜸이다.

울산 태화강대공원 내 작약원~태화루 일원에 1만제곱미터 규모의 '무궁화 공원'이 새롭게 조성됐다. 이 곳에는 울산 지명 품종 11종과 특허 품종 11종, 기타 품종 2종 총 24종의 무궁화가 심어졌다.

그 중에서도 심경구 무궁화 박사가 개발한 무궁화 11종은 울산 지명을 따서 꽃



이름이 붙여졌는데, '학성', '처용', '여천' 등 이름 찾기 게임을 하는 것도 재미를 더 한다.

무궁화가 이렇게 다양한 품종이 있고, 그 품종마다 제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어여쁜 줄 몰랐던 방문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꽃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며 감탄하기에 바쁘다. 산책로 곳곳에 꾸며진 포토 존, 살랑거리는 무궁화 꽃잎에 뒤질 새라 연신 돌아가는 태극기 모양의 바람개비가 방문객의 걸음을 쉬게 한다.

자연의 평화로움을 만끽하는 '생태공원'

태화루에 주차를 하고 무궁화 정원까지 되돌아가던 길을 멈추고 싶지 않다면, 생태공원까지 걸어보자.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고 산책길은 태화강을 옆에 끼고 길게 놓여있다.

이 곳은 세상에 존재하는 평화로움을 다 가져다 모은 듯 한가롭다. 한 걸음엔 대나무의 푸른 숲이, 다른 걸음엔 느티나무가 담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넉넉하게 품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곳에 오면 자연스레 처음 보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게 된다. 주인을 따라 산책 나온 강아지조차 반갑다.

괜스레 마음만 바쁘고 생각이 많아질 때, 하늘은 높고 푸른데 몸은 땅속으로 꺼질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 운동화 끈을 짚곤 동여매고 이곳으로 걸음을 돌리자. 분명 자연이 주는 위로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취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남도의 산책 명소

전남 완도 명사갯길

이 곳은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과 완도항을 내려다보면서 명상할 수 있는 명품 녹색길이다.

신지대교에서 시작해 명사십리해수욕장이 끝나는 울물 마을까지가 1코스, 이후 석화포를 거쳐 내동마을까지 총 2코스로 이뤄져 있다.

또, 남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명사십리해수욕장을 끼고 있어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가을을 즐기는데 안성맞춤이다.



코스경로 신지대교휴게소~명사십리해수욕장~울물마을~석화포~내동마을

거리 15.2km / **소요시간** 5시간

전남 여수 거문도 녹산 등대 가는 길

녹산 등대는 거문도에서 가장 큰 서도에 있는 무인등대로 손죽도, 초도, 장도 등 다도해의 수많은 섬들을 매일 비추고 있다.

이 등대를 만나러 가는 길은 아름다운 풍광들로 심심할 틈이 없다. 녹문정에서 시원한 남해바다의 풍광을 즐기고, 인어를 테마로 조성되어 인어상이 인상적인 인어해양공원을 둘러보자.

특히 인어해양공원절벽 4미터 높이의 살랑 바위는 파도가 절벽을 때리면 그 포말이 마치 백마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처럼 웅장하고 아름답다 하여 거문도 8경 중 1경으로 꼽힌다.



코스경로 서도마을~전망대(녹문정)~인어해양공원~녹산등대~이금포(이끼미) 해수욕장~서도마을

거리 3km / **소요시간** 2시간

장애와 가난 딛고 배움에 한가닥 희망

소녀는 엄마를 기다린다. 아무도 없는 집, 텅 빈 마당에서 나를 팔러 장애 간 엄마를 기다린다. 소녀의 허리춤은 끈으로 묶여 나무에 연결돼 있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 안에서 흙투성이 소녀는 순하디 순한 웃음을 띠 채 아무도 오지 않는 산 아래 길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가난한 농가, 육 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난 엄순화 씨(40세)는 남목고개 넘어 가는 염포산 자락에서 86세의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나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어린 시절, 엄순화 씨는 부모님이 일을 나가거나 볼 일이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끈에 묶인 채 마당 나무 옆을 홀로 지켰었다.

부모는 엄순화 씨가 태어나기 훨씬 전, 국유지를 빌려 여기에 정착했다. 방 두 칸짜리 슬레이트집을 지은 뒤, 남의 논을 일구고 뒷산을 내 밭 삼아 살아왔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어머니가

남목장에 내다 파시는 일을 하셨다. 봄이면 쭉과 냉이가, 가을이면 기른 곡식이며 호박 등을 내다 파는 게 별이의 전부였다. 온산에서 여기로 이사 올 땐 한창 개밭 봄이 일어 혹시 살림살이가 퍼지지 않을까 하고 옮겨 왔지만 아들 셋, 딸 셋 줄줄이 팔린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날들이 이어졌다.

날 때부터 1급 장애를 가진 엄순화 씨는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발음도 부정확해 입 모양을 자세히 들여야 보아야 간신히 뜻을 알 정도로 심하게 신체를 쓰지 못해 양육은 더욱 어려웠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는 다리가 아파 문밖 출입이 차츰 줄어들다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도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다른 형제 자매들은 모두 장성해 흩어졌지만, 지독한 가난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인지 무직에, 이혼에 다들 제 앞가림하기도 빠듯해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이다.

어려서 등 굽어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옛 말처럼 장애를 앓고 있는 막내딸이 지금은 자식 중에 제일 효자 노릇을 한다. 엄마의 먹을 거리, 잠자리를 걱정하고 곁에서 애교도 부리며 늘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준다.

지는 지 40년도 더 된 집은 구들장이 내려앉고 기둥이 약해지면서 천장이 무너져내려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집 밖으로 열 걸음 이상이나 떨어진 재래식 화장실은 한 걸음도 힘든 엄순화 씨에게 버겁지만 그래도 내 집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단다.

몇 년 전 동구청의 도움으로 외벽 옆으로 패널을 덧대, 둘이 자면 딱 맞는 방 한 칸, 부엌 한 칸을 마련했다. 그조차 이제는 이음새가 벌어지고 비가 들어쳐 부엌 한쪽 벽면이 온통 검은 곰팡이 투성이다.

애초 집을 지을 때 잘 못 지은 탓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아랫집 전기를 끌어다 함께 쓰다 보니 전기료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한다. 산바람이 문틈으로 칼날같이 들어오는 한겨울에도 바닥에 깔아둔 전기장판을 아껴가며 쓰느라 손발이 다 곱아 든다. 올 봄엔 80대 노모마저 나물을 캐다 손을 다쳐 손톱이 빠지고 휘어져 쉬엄쉬엄 하던 일조차 접은 상태다.

장애를 이겨낸 학업 의지

그런 와중에도 엄순화 씨는 한 달 수입의 전부인 장애인 연금 80만원을 쪼개가며 지난 해에 고등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밥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줘야 제대로 한 술 베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한 신체지만 배움의 의지를 막진 못했다. 혼자 힘으로는 시험을 칠 수 없는 터라 두 명의도우미가 옆에서 읽어주고 써주는 대독, 대필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체는 불편하지만 엄순



화 씨는 다니는 장애인센터 10여 명의 학생 중 유일하게 고등 검정고시를 통과할 만큼 충기 있고 또 노력파다.

한편, 엄순화 씨는 공부뿐만 아니라 글짓기와 미술에도 재능이 있다. 전국 규모의 장애인 글짓기 공모전에서는 동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손으로 붓을 칠 수 없어 입으로 간신히 그린 그림도 수준급 솜씨다. 하지만 요즘 물감 가격이 많이 올라 그나마 좋아하던 그림을 쉬고 있다.

엄순화 씨가 공부하러 다니는 장애인센터인 마중물주간보호센터에는 모두 19명의 학생이 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딸아이 덕분에 장

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두 내 자식처럼 생각된다는 오경자 원장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일반인에 못지 않게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만든 재단이다. 정부 보조금으로는 운영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지만 따뜻한 이웃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있어 그럭저럭 유지해 나간다.

센터는 천상에 위치해 동구와는 거리가 먼 편이지만 원장이 개인 차로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자택에 재우고 생활도 같이하며 편의를 제공한다. 엄순화 씨는 학교를 다니고부터 걸음걸이나 말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한다. 친구들과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도자기, 미술, 컴퓨터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재활운동도 꾸준히 한 결과, 몸 쓰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더해졌다.

엄순화 씨의 꿈은 대학에 들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장애인복지법을 공부해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싶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지우는 불혹의 나이에, 자신의 할 일을 분명히 알고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엄순화 씨. 그녀의 구부러진 뒷모습이 정말 당당하다.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도움 계좌

경남은행 650-21-0215495(예금주 엄순화)

‘햄버거병’이 뭘길래?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별칭인 ‘햄버거병’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이는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최근 국내에서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병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질병의 원인과 제 증상들을 알아보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어떤 질병인가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적혈구의 비정상적인 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손상 받은 적혈구가 신장의 여과망을 막아서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 등이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보통 특정 대장균에 감염되어, 혈성 설사 후 5~10일 정도 지나면 발생하는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감염된 환자들은 혈성 설사, 소변양 감소, 혈뇨, 복통, 구토, 발열, 피곤함, 기면, 발작, 고혈압, 명, 전신 부종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은 시가 독소(Shiga toxin)를 생산하는 대장균입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의 장내에는 무해한 대장균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이를 정상세균총(正常細菌叢)이라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특정 대장균은 식중독 및 설사,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시가독소를 생산하여 사구체 상피세포의 손상과





모세혈관 폐색을 가져와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퀴닌(Quinine), 일부 항암제,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등 약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며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HIV) 감염증 환자, 임산부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소, 양, 염소, 돼지, 개, 닭 등 가금류의 대변에서 시가 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이 발견되는데,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기의 조리가 충분치 않으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 섭취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으로는 음식물 섭취 후 3~4일 정도의 잠복기가 지난 뒤 복통, 미열, 오심, 구토,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은 5~10일 지나면 자연 호전되나, 일부 고령층이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합병증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연간 50명 내외의 환자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여름철인 6~8월에 발생이 많고, 5세 미만이 환자의 40~60%를 차지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심한 빈혈 시에는 적혈구를 수혈하고, 출혈이 있는 경우 혈소판을 수혈합니다. 탈수가 있는 경우 수액 치료, 전해질 교정을 실시하고, 투석 적응증이 되는 경우(소변량 감소, 전해질 교정이 잘 되지 않을 때, 심한 폐부종 등) 투석 치료를 시행합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사망률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30~40%의 환자는 다양한 기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 단백뇨에서부터 만성 신부전, 말기 신부전 등이 예후(豫後/병이 나은 뒤의 경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 정지원 교수 (울산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오늘도 하얏게 불태웠어”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밀려드는 일을 하다 보면
문득 온몸의 힘이 빠져나갈 때가 있다.
고된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장인들에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번 아웃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자.

‘번 아웃 증후군’이란?

연탄이 다 타버려 하얏게 되듯이, 사람도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정신적인 탈진상태, 즉 번 아웃(Burn Out)에 빠집니다.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극도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번 아웃 증후군은 1970년대 미국의 정신분석의사 헤르베르트 프로인테 베르거가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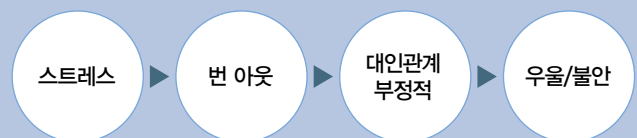
처음에는 누군가를 돕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과도한 업무량,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스스로의 엄격한 잣대 또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기대로 인해 느끼게 되는 피로, 소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직종과 무관하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심신의 에너지 고갈’, ‘무관심’ 또는 ‘냉소적’, ‘업무 성과 저하’의 증상들을 보이면 번 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번 아웃과 스트레스, 우울증은 어떻게 구분되나?

번 아웃 증후군은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지만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외부적인 사건이나 환경을 일컫는 것이라면, 번 아웃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유발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지만 극복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번 아웃 증후군인 것입니다. 번 아웃 증후군의 원인과 결과는 ‘업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번 아웃이 오래 지속되면 업무뿐 아니라 대인관계,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번 아웃 증후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 나만의 대나무 숲을 만들자

대나무 숲에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외쳤다는 이야기처럼, 직무 스트레스나 고민을 털어놓을 직장 동료, 친구, 선후배를 적극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심적인 의지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공감을 얻는 것은 번 아웃 증후군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잘' 쉬자

'잘' 쉬는 것이란 여행 및 맛집 탐방, 강연 참가 등과 같은 외부적 활동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하고, 종일 한곳에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평소 업무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해보세요. 평소 사용하지 않던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사무실 업무가 주라면 운동이나 산책을, 동적인 외근이 주라면 독서나 명상 등 조용한 취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 일하는 습관을 바꿔보자

번 아웃 증후군은 과도한 업무에 압도 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업무 목표나 기준을 크고 이상적으로 잡기보다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기 목표(하루, 1~2주)와 장기 목표(1년, 5년, 10년 등)를 나누고, 단기 목표를 해낼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선물, 여행, 자유 시간 등)을 주도록 합시다. 아울러 내가 업무를 하면서 어떤 점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지, 어떤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보고, 해결책도 같이 생각해봅시다.

• 업무는 행복을 위한 수단임을 명심하자

"피곤해", "쉬고 싶다", "일하기 싫어", "언제 퇴근하지?"와 같은 생각이 계속 마음 속에 찾아온다면, 번 아웃 상태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일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행복의 상위 목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과 건강, 행복 사이의 균형을 잡길 바랍니다.

글 서상숙 상담사(현대삼호중공업 마음지원)



번 아웃 증후군을 예방하는 간단한 팁

- ① 틈틈이 휴식을 취한다.
- ② 점심시간을 이용해 10~20분 짧은 명상을 해본다. 심호흡, 복식호흡, 간단한 스트레칭, 음악 듣기, 산책 등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어떠한 행동도 좋다.
- ③ 직장 동료들과 서로 힘든 이야기나 고민을 자주 털어놓도록 한다.
- ④ 출근을 하면 그 날 할 일을 리스트로 적어 보고, 퇴근하기 전에 다시 체크해보자.



경영설명회로 위기 극복 공감대 마련

현대중공업 각 사업본부에 잇따라 경영설명회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의 의지를 모았다.

조선사업본부는 9월 7일 사내 체육관에서 5천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설명회'를 갖고, 회사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경영지표들을 가감 없이 소개하며 위기 극복의 공감대를 형성했다(사진)

해양사업부문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충분담을 통한 위기 극복 동참을 당부했다.

플랜트사업부문과 엔진기계사업본부도 각각 9월 6일과 8월 25일 '경영현황 설명회'와 '영업시황설명회'를 개최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1천800톤급 잠수함 신돌석함 진수

현대중공업은 9월 7일 특수선 공장에서 강환구 사장과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수량 1천800톤급 잠수함의 진수식을 가졌다(사진) 이 잠수함은 구한말 항일 의병운동에 앞장선 신돌석(申堧石) 장군(1878년~1908년)을 기려 신돌석함으로 명명(命名)됐다.

길이 65미터, 폭 6.3미터 크기인 신돌석함의 최대 속도는 20노트(약 37km/h), 항속거리는 1만여 해리(1만9천여km)이며, 공기 없이도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탑재해 장시간 잠항(潛航)이 가능하다.

신돌석함은 마무리 작업과 해상작전 운용시험 등을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그룹 신입사원 수련대회 실시

현대중공업그룹 신입사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2017 현대중공업 그룹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사무기술직과 생산기술직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9월 4일부터 6일,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주에서 2박3일간 열렸다.

이들은 경영 특강, 팀워크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정신을 새기고 동료애를 길렀으며, 행사 이틀째 열린 '현종인의 밤'에는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과 강환구 사장을 비롯한 각사 경영진들이 참석해 신입사원들을 격려했다(사진)

권오갑 부회장은 "지금은 어렵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와 LNG 기술개발 협력

현대중공업은 9월 12일 종합연구동에서 호주 LNG연구센터와 'LNG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호주는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으로, 호주 LNG연구센터는 셸(Shell), 셰브론(Chevron)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LNG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해각서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호주 LNG연구센터는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고, LNG 재액화시스템, 재기화시스템, 가스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호주 LNG연구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형 LNG액화실증플랜트 건설 사업에 기초설계(FEED) 단계부터 참여해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대형엔진 시운전 성공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가 '저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P SCR)'를 처음으로 장착한 친환경 대형엔진을 생산했다.

현대중공업은 9월 13일과 14일 대형엔진-2공장에서 저압용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장착한 2만2천마력급 대형엔진의 시운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사진> 이 엔진은 이달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15만7천톤급 원유운반선에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개발한 이 저감장치는 기존 고압용보다 출력이 두 배 이상 높은 최대 10만9천마력급 대형엔진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건설기계·일렉트릭, R&D 투자 확대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9월 4일 이사회를 열고, 현 발행 주식수의 약 38%에 달하는 138만주, 142만주의 유상증자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존주주 및 유상증자 참여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1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현대건설기계는 3천400여억원의 자금을 확보,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신흥국 시장의 해외법인 구축과 신뢰성 센터 설립 등의 R&D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현대일렉트릭은 2천700여억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 불가리아 등 유럽 선진 시장의 해외법인 구축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구축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일렉트릭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

현대일렉트릭이 최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회사와 제품을 알리는 공식 채널을 개설했다.<사진>

현재 이 채널에는 현대일렉트릭 회사 홍보영상을 비롯해 전시회 참가 영상, 3D 제품군 소개 영상 등 총 14개의 동영상 콘텐츠가 올라와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품 홍보영상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Hyundai Electric'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이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방문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고객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기계 독일 광산장비展 참가

현대건설기계가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독일 홈베르그(Homburg)에서 열린 광산장비 전시회인 '스테인엑스포(Stein Expo 2017)'에 참가했다.<사진>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건설기계는 최신 광산용 굴삭기와 휠로더 모델을 전시하고 장비 시연회를 개최해 현지 고객들에게 우수한 성능을 홍보했다.

또 현대건설기계 아틀란타법인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미 지역 딜러 40여명을 대상으로 '영업력 강화 교육(Sales Training)'을 갖고, 제품 특장점 및 전문 판매기술 교육, 장비 실습 등을 통해 현지 딜러들의 영업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고(高)망간강(鋼) 적용 벌크선 진수

현대미포조선이 9월 15일 선주와 선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LNG 연료탱크에 '고망간강'을 적용한 벌크선을 진수했다.

포스코가 개발한 신소재인 고망간강은 영하 162℃에 달하는 극저온의 LNG를 보관할 수 있으며, 기존 합금소재에 비해 강도와 인성이 월등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6월 '일산해운사로부터 이 5만톤급 벌크선을 수주했으며, 이 선박은 3안벽으로 이동돼 마무리 의장작업을 마치고 오는 11월 인도될 예정이다.



수주경쟁력 강화 위한 워크숍

현대미포조선은 9월 16일 울산 동구 기술교육원에서 전 임원 및 부서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주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조선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2017년 수주 계획 및 실적 ▲2018년 물량확보 현황 ▲경쟁사 동향 ▲수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건조 중인 선박의 완벽한 품질확보와 철저한 고객관리,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으며,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선종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감 확보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부문별 위기극복 결의대회 잇달아

현대미포조선에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위기극복을 위한 부문별 결의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먼저 현대미포조선 인사·총무부문은 8월 25일 관성하계휴양소에서 8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시운전부와 공사지원부도 같은 장소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했으며, 한영석 사장과 하수 부사장 등 경영진도 휴양소를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외업 부문과 외업부문은 8월 26일과 9월 2일, 생산지원 및 안전부문은 9월 9일 염포산 및 방어진 체육공원 일원에서 임원 및 부서장, 팀장 등 직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직원 17명 담배 끊었다

현대미포조선 직원 17명이 사내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했다.

현대미포조선 안전보건부와 울산 동구보건소가 8월 31일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과 소변검사 등 금연 성공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모두 17명의 직원들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도전했으며, 현대미포조선은 금연에 성공한 직원들에게 7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선물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006년부터 동구보건소와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227명의 임직원들이 금연에 성공했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3팀 수상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해 대통령상 은상 2팀과 대통령상 동상 1팀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장 2부 〈무한대-무지개팀〉은 '선박표면처리 작업 개선으로 작업시간 단축'을, 건조 3부 〈창조팀〉은 '유조선 육상건조 공정 개선으로 리드타임 단축'을 발표해 각각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했다. 특히 도장 2부는 협력회사 회장 산업과 한 팀을 이뤄 올해 처음으로 상생협력분야에 출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선장설계부 이글스팀은 '컨테이너선 화물창용 통풍의장 설계 개선으로 생산공수 절감'을 발표해 대통령상 동상을 받았다.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명명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9월 7일 사우디 국영 선사인 바흐리(Bahr)로부터 수주한 30만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S845)의 명명식을 1안벽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문균 사장을 비롯해 하삼 알누카이미쉬(Mr. Hisham Al Nughamish) 사장과 선주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선박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명명식에서 이 선박은 선주사의 살레알 데바시(Mr. Saleh Al Debas) 이사에 의해 RIMTHAN(림탄)호로 명명됐다.

이 선박은 올해 1월 강재절단식을 시작으로, 4월 옹골거치, 6월 진수를 거쳤다. 길이 332미터, 폭 60미터, 깊이 29.4미터의 제원을 갖췄으며 최고 14.6노트(약 27Km/h)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직원 19명 우수성과 포상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남다른 열정과 역량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 19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문균 사장은 지난 9월 6일 조찬회에서 19명의 포상자를 대표해 정병찬 반장(공무부)에게 대표이사 표창장과 별도의 포상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우수성과 포상자는 외판 리그 제거 전용 지그를 개발한 정병찬 반장 등 3명, LPG운반선(S881~4)의 공정을 개선한 한정우 차장(건조 2부) 등 6명, FFU(S707)의 손익구조를 개선한 조희옥 부장(계약운영부) 등 10명이다.



기능장회, 10년째 교육 재능 기부

현대삼호중공업 기능장학습봉사회는 지난 9월 14일 학습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암 구립공업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의 학생 70여명을 회사로 초청했다. 이는 조선 현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기능인으로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회원들이 인근 고등학교를 찾아가 용접 등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매년 한차례씩 학습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현대삼호중공업이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직원들의 기능장 취득을 장려하며 생겨난 이 동호회는 지역을 위해 뜻 깊은 일을 해보고자 재능기부로 학습봉사를 추진했다.

| 현대오일뱅크 |



모바일 보너스카드 개편

현대오일뱅크(사장: 문종박)가 최근 모바일 보너스카드인 '블루(BLUE)'를 개편했다고, 9월 11일 밝혔다.

블루는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한 금액에 따라 모바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전보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용고객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Naver) 아이디만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도 H포인트(현대백화점그룹 통합포인트)로 바뀔 수 있다.

또한 셰이크(Shake) 기능을 가진 블루 앱은 사용자가 휴대폰을 흔들기만 해도 포인트 적립 바코드를 바로 띄울 수 있으며, 주유소별로 판촉행사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아산병원 |



뇌 방사선 수술 1만례 달성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 방사선수술센터가 최근 칼을 대지 않고 뇌종양을 수술하는 방법(뇌 정위 방사선 수술)으로 1만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990년부터 감마 나이프(Gamma Knife) 수술로 8천936명의 뇌질환 환자를, 2011년부터 사이버 나이프(Cyber Knife) 수술로 1천64명의 환자를 치료해, 양성 종양 95%, 악성 종양 90%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한편, 감마 나이프는 뇌 속에 있는 종양의 위치를 정조준해 방사선을 쏘아, 방사선을 20개의 경로로 분산시켜 방사선이 지나가는 정상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사이버 나이프는 치료받는 환자가 호흡 등으로 인해 미세하게 움직이면 이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방사선을 쏘아 치료하는 방법이다.

| 울산대학교병원 |



중증외상이송단 24시간 운영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응기) 권역외상센터가 도로 위의 응급실인 중증외상이송단(Mobile Trauma Unit)의 닥터카를 24시간 운영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닥터카에는 외상센터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이 팀을 이뤄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와 물품, 약품 등을 구비해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진료한 후 고위험 약물 투여와 기도 유지, 흉관 삽입 등 전문 시술에 나선다.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형사고 현장과 중증외상 환자 발생 장소로 신속하게 출동하는 닥터카 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부터 연중무휴제로 운영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세계대학평가서 국내 12위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는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주관하는 '2017~2018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12위(세계 501~600위), 지방종합대학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평가는 THE가 조사 대상을 전년도 상위 980개 대학에서 1천102개 대학으로 늘려, △교육여건 △연구실적 △논문당 피인용수 △국제화 수준 △산업체 연구수입 등 5개 영역 13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울산대는 논문당 피인용수 국내 6위, 연구실적 국내 16위 등을 기록했고, 학문 분야별로도 국내 대학 가운데 △스포츠과학 4위 △건축학 4위 △토목공학 6위 △간호학 7위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울산대학교 |



해외파견 프로그램 발표회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가 8월 30일 동부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2017 글로벌 LTE 해외파견 프로그램 참가 발표회'를 개최했다.

60명의 재학생들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캐나다, 독일, 일본 등 5개국에서 해외 산업체 현장실습과 글로벌 챌린저(Global Challenger/재학생이 직접 해외 산업체 방문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기주도적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배운 경험들을 발표했다.

한편, 울산과학대는 외국어를 배워(Learning) 해외 산업체 실습(Training)을 통해 취업(Employment)까지 성공하는 '글로벌 LT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학생의 해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울산과학대학교 |



추석 연휴 이벤트 진행

강릉 씨마크호텔(대표이사: 남상무)이 10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를 맞아, 가족 여행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씨마크호텔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전 시간에 '바다 부채길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 4일과 5일 '보물찾기 이벤트'로 방문 고객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10월 6일과 7일에는 한옥 스위트인 호안재에서 '한옥 설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호텔현대울산도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에게 4인룸(시니어 스위트룸)을 직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16만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씨마크호텔 ☎033) 650-7000, 호텔현대울산 ☎052) 251-2233)

| 씨마크호텔 |



“미묘한 감정을 그려내는 완벽한 연주”

세계 최고의 연주력으로 명실상부 세계 5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현대예술관을 찾아 고품격 클래식 무대를 선사한다.

2012년 현대예술관 대공연장에서 전석 매진의 역사를 세운 그들은 5년만의 재방문을 통해 또 한 번 기록적인 신화를 남길 예정이다.

1951년 창단 이후 300여 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해 온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뉴욕 필, 베를린 필,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 런던 필과 함께 최고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인정받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시대에 걸맞은 곡 해석과 웅장한 연주력으로 현재까지 유수의 콘서트 홀에서 6천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감동을 선사해 왔다.

올 11월, 전세계를 사로잡은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서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만끽해 보자.

지휘자 유리 보트나리 (Yuri Botnari)

Barcelona Philharmonic Orchestra 상임지휘자 및 음악감독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명예지휘자
Royal Music Society Foundation 회장

몰도바 키시네프 출생. 1982년 Young Composers 경쟁 부문에서 우승하며 지휘자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다.

1985년 몰도바 국립 극장에서 예술감독이자 수석 지휘자로 선임되었고, 이후 원숙한 지휘 기술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2005년 6월 심포니 지휘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공로로 영국 국제인명센터의 세계적인 명사(Worldwide Honours List)에 등재되기도 했다.

2003년부터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며 전세계 50여개국에 이르는 해외순회공연을 펼치고 있다.

Program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1번 (Tchaikovsky Symphony No.1)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Tchaikovsky Symphony No.5)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람정보 |

일시 2017. 11. 27(월) 오후 8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관람등급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티켓가 R석 9만5천원, A석 7만5천원, B석 4만5천원

(HHI 및 관계사 임직원 30~50% 할인)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블로그 'hi,hhi'에서 남은 현대예술관 하반기 공연 라인업을 확인하세요.

“실력파 배우들의 강렬한 퍼포먼스”



‘전세계 57개국 308개 도시 해외 공연 투어’, ‘총 공연 횟수 3만 9천913회’, ‘1천300만 관객 돌파’

공연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송승환의 ‘난타’가 올 연말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20년 장기 공연의 믿을 수 없는 신화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후 제 14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공연, 뉴욕 브로드웨이·방콕·광저우에 난타전용관 개관 등 전세계를 매료시켜 온 ‘난타’는 이제 공연 그 이상의 문화 상품으로 평가 받는다.

한국 고유의 신명 나는 사물놀이 장단에, 주방 도구들을 악기 삼아 펼쳐지는 화끈한 퍼포먼스가 특유의 재미를 선사한다.

무엇보다 대사가 아닌 몸짓과 소리로 구성된 비언어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로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연말 공연이 될 것이다.

신나는 리듬과 불타는 정열이 살아 숨쉬는 단 하나의 두드림! 올 연말, ‘난타’와 함께 뜨거운 송년 파티를 즐겨보자.

Synopsis

개성만점 세 명의 요리사가 일하는 주방 안. “잡채, 인절미, 크림 케이크...” 다짜고짜 예정에 없던 결혼식 파티를 준비하라는 지배인의 명령이 떨어진다.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시간! 과연 이들은 무사히 결혼식 파티를 준비할 수 있을까?

Review

“난타는 기분 좋은 떨림” “Cookin gives off good vibes”

—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

“1999년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최고작. 전석 매진!”

“Toast of 1999 Edinburgh Festival. Completely Sold-out!”

— 미국 뉴스 전문 방송업체 (CNN)

“동양의 춤과 타악기 그리고 곡예를 가미한 서양식 유머”

“Western humour with Oriental dance, percussion and acrobatics”

—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The Daily mail)

| 관람정보 |

일시 2017. 12. 1(금) ~ 2(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가 1층 3만5천원 / 2층 2만원

(H+H 및 관계사 임직원 30~50% 할인)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울산의 축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달콤한 A매치 휴식기간을 가진 K리그가 어느새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울산현대대는 리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올해에도 ‘축구 명가’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전반기에는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잔물 축구’로 바닷가가 연고지임을 팬들에게 각인시킨데 이어, 후반기에는 물오른 이종호와 오르샤의 ‘호르샤’ 콤비를 앞세워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는 중이다.



올 시즌 울산은 말 그대로 ‘지고는 못 배기’ 팀이다. 팀별 3경기씩을 치르는 정규리그에서 현재 울산에 2승 이상을 거둔 팀은 제주뿐이다. 울산은 수원과 서울, 강원, 대구를 상대로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해당 팀들에 ‘잘 가세요’ 트라우마를 심어주기도 했다.

1패가 곧 탈락인 FA컵에서는 더욱 강력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매 경기 압도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격파해온 울산은 3부 리그의 기적을 꿈꾸는 목포시청에게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 줄 작정이다.

김도훈 감독은 지난 9월 1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017 KEB 하나은행 FA컵 준결승 대진 추첨에서 “멀리 울산까지 오게 된 목포시청이 관광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스포츠의 불문율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울산은 10월에도 팬들을 위한 다양한 ‘꿀잼’ 경기를 예약해두고 있다.

울산현대 10월 경기일정 (스플릿 라운드 미정)

일 시	상대팀	장 소	비 고
10/1(일) 오후 3시	강원 FC	평창 알펜시아	K리그
10/8(일) 오후 3시	광주 FC	광주월드컵경기장	K리그

돌아온 ‘윤초루’ 고향 복귀를 신고합니다!

잘생긴 외모와 러블리(?)한 SNS 감성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윤초루’ 조영철(29세)이 군복무를 마치고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왔다.

김도훈 감독과 같은 울산 학성고 출신인 조영철은 일본 J리그(요코하마 FC, 알비렉스 니가타,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해 카타르 리그(카타르SC)를 거친 뒤 지난 2015년 7월 고향팀 울산에 입단했다. 시즌이 끝나고 곧바로 군에 입대한

조영철은 상주 상무 소속으로 경기력을 유지하며, 울산 복귀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조영철은 “울산 입단 후 몇 경기를 치르지 못한 채 군대에 가게 된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다”며, “축구선수의 꿈을 키운 이곳 울산에서 다시 한 번 실력을 통해 팬들에게 인정 받겠다”는 의지 가득한 전역 소감을 전했다.

조영철은 2015년 당시 소속팀이던 카타르 SC로부터 갑작스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이적 첫 해부터 6골 6도움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





두며 리그에 안착했지만, 중동팀 특유의 무책임한 선수 방출 행태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조영철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울산으로의 복귀는 행복한 일이었지만, 카타르에서 리그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한창 순위 싸움 중이던 울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믿고 기다려주신 고향 팬들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불태웠다. 울산은 조영철의 합류로 양질의 공격 스쿼드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유명했던 뛰어난 개인기와 중앙과 사이드를 오갈 수 있는 멀티플레이 능력으로, 울산의 공격 포메이션을 더욱 다채롭게 해줄 전망이다. ‘강한 팀에 필요한 강한 선수가 되겠다’는 조영철의 다짐이 울산의 막판 스퍼트에 큰 힘을 실어 주기를 기대해본다.



조영철 선수

승팀과 강등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프로축구 리그 중 우리나라와 스코틀랜드만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상위 그룹 6개 팀은 우승 경쟁을, 하위 그룹 6개 팀은 챌린지(2부 리그) 강등을 두고 매 경기 혈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와 볼거리가 탄생한다. 특히 지난 시즌 2부 리그 강등이 유력했던 인천 유나이티드는 스플릿

라운드에서 놀라운 투혼을 발휘하며 클래식에 잔류, 많은 축구 팬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울산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상위 스플릿에 들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으나, 하위 그룹 팀들을 상대로 경기력을 대폭 끌어올리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난하게 상위 그룹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K리그 ‘스플릿 라운드’

리그의 재미를 더해주는 스플릿 라운드가 축구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다. 정규 리그 종료 후 실시되는 스플릿 라운드는 K리그 클래식 전체 팀을 상·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경기를 치른 뒤 우

K-LEAGUE 스플릿 시스템

1~33R, 클래식 정규 리그(12팀) → 상위그룹(6팀) → 1위~6위 : 우승 경쟁
하위그룹(6팀) → 7위~12위 : 잔류 경쟁



화려한 조명 아래서 즐기는, ‘피트니스+댄스’

"하나, 둘, 셋, 넷~ 흔들고, 올리고, 쪽쪽!" 신나는 구령과 함께 댄스핏(Dancefit) 강좌의 열기는 후끈 달아오른다.

광광 올리는 음악 소리와 흡사 클럽을 연상시키는 현란한 조명은 그 흥을 더욱 돋워 준다.

댄스핏은 빠른 음악과 댄스를 결합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으로, 울산에서는 한마음회관에서 최초로 실시되고 있다.

초보자도 어렵지 않은 경쾌한 운동

회원들은 음악에 맞춰 몸의 관절과 근육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인다. 어려운 방송댄스 안무나 오랫동안 운동했던 사람들만 따라갈 수 있는 수업이 아니다. 누구나 쉽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산소 댄스 운동이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물론, 균형 잡힌 몸매 만들기에 효과적이다. 댄스적인 요소보다 피트니스의 요소가 더욱 많이 가미돼 심폐기능 강화, 체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라 한다.

댄스핏 강좌는 지난 9월부터 한마음회관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필라테스 강좌와 함께 댄스핏 강좌를 맡고 있는 황영희 강사는 울산에서 댄스핏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이게 됐다며 강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이어서 황영희 강사는 “한 강좌마다 25명까지도 회원 구성이 가능한데, 아직은 댄스핏이라는 운동이 생소한 분들이 많아 회원은 열명 남짓”이라며, “댄스핏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신나고 즐겁게 운동하겠다”고 전했다.

회원들은 3개월의 수강기간 동안 총 8~10개의 노래에 맞춘 동작을 배우게 된다. 먼저 강사의 구령에 맞춰 새로운 동작을 천천히 익히고, 그 후 화려한 조명 아래 모두들 연습한 기량을 뽐낸다.

에너지 넘치는 회원들의 동작을 보면 ‘댄스라고 하면 박자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저 멀리 사라진다. 흥이 올라 한껏 상기된 회원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

잠재된 흥과 끼 폭발, 스트레스 해소는 댄!

오늘이 첫 수강이라는 청일점(靑一點) 회원은 많은 여성 회원들 속에서 머쓱한 표정을 짓다가, 이윽고 적응이 됐는지 힘차게 팔다리를 움직이며 환한 웃음을 짓는다. 김경화 씨는 “음악이 있고, 조명이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수업에 집중하다 보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고 말한다

또, 이예지(현대중공업 화공사업관리부) 사우는 “어려운 동작이 아니라서 중간에 하루 정도 빠져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며, “댄스 강좌는 동작 진도에 연연하게 되어 따라가기가 박찬데 댄스핏은 그런 점이 없어서 좋다”고 소감을 전한다.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진행되는 댄스핏은 매시간마다 새로운 동작을 익힌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손, 발 동작을 배우고, 전면 거울을 보며 동작을 교정한다. 다른 회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강습 시간은 어느새 끝나고 만다. 몸치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시도해 볼만 하다. 한편, 댄스핏 강좌는 기본 동작을 익히고 나면, 실내를 어둡게 하고 상부에 반짝 빛나는 조명을 켜다. 이 조명은 초보자들의 서툰 동작을 살짝 가려주기도 하고, 완벽한 동작을 더욱 멋있게 보이도록 부각해주기도 한다. 이 때문에 동작을 틀리는 회원들도 부끄러움을 느끼며 움츠려 들기보다는 어딘가에 숨어있는 끼와 흥을 분출하게 된다.

황영희 강사의 힘찬 구령과 함께 회원들의 동작은 더욱 과감해지고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껏 흥겨워진다. 긴장이 가득해 보이던 회원들의 얼굴엔 어느새 화색이 돌고, 어깨도 쭉 펴진다.

신나는 음악에 사랑살랑 리듬을 타면서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강좌! 올 가을 댄스핏을 통해 나의 숨은 끼와 흥을 발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흔들흔들 댄스핏(Dancefit)

장소 한마음회관 강의실 3층 무용실 2번

강의 시간 월, 수 저녁 7시 ~ 7시 50분

수강료 12만원/3개월

준비물 개인 운동복, 운동화, 수건 등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소박한 삶의 행복”

‘휘게(Hygge)’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박한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덴마크 단어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는 덴마크에서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휘게’를 달고 산다.

그들은 모임 전에 그 모임이 얼마나 휘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난날을 추억할 때는 그 당사가 얼마나 휘게 했는지에 대해 회상한다고 한다.

“휘게 하지 않은 삶은 무효”라고 말하는 덴마크 사람들은 소박하고 아늑한 일상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된다고 믿는다. 휘게는 경쟁사회가 부여하는 압박과 긴장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 인생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또,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늘려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이 단어의 기원은 ‘안아주다’라는 뜻의 ‘허그(Hug)’로 추정된다. 허그의 어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종종 휘게(Hygge)라는 단어와 혼용되곤 했다. ‘위로해주다’라는 뜻의 휘게는 그 기원이 게르만족의 고대어인 휘간(Hugyan)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생각해주다’ 혹은 ‘배려해주다’이다. 결론적으로 휘게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보내준 따뜻한 위로의 포옹’인 셈이다.

세계행복지수 1위를 유지하는 덴마크의 비결은 바로 이 휘게 정신에 있다고들 말한다. 화려함이나 호화스러움의 정반대인 휘게는 간결하고 소박한 자기만족이 핵심이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핵심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미니멀리즘과도 일맥상통하는 태도다.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휘게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주말 저녁, 거창한 요리 대신 가벼운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할 일을 마친 후 아이들과 놀아주기보다는 아이와 집안일을 함께 하며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다.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하는 소박한 시간이 바로 ‘휘게’다.

참고 도서 휘게 라이프,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마이크 비킹 저), 휘게 스타일(마리 토렐 소더버그 저)

휘게의 9계명

- ① **분위기** :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한다.
- ② **지금 이 순간** : 현재에 충실한다. 휴대전화를 끈다.
- ③ **달콤한 음식** : 커피, 초콜릿, 쿠키, 케이크, 시탕, 더 주세요!
- ④ **감사** : 만끽하라.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인지도 모른다.
- ⑤ **조화** :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뽐낼 필요가 없다.
- ⑥ **편안함** : 휴식을 취한다.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⑦ **휴전** : 감정 소모는 그만. 정치에 관해서라면 나중에 얘기한다.
- ⑧ **화목** :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관계를 다져보자.
- ⑨ **보금자리** : 이곳은 당신의 세계다.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다.



별빛 아래 오로라



현대중공업 특수선의장설계2부 | 조해영 대리

잠깐의 외출에 얼음 송곳 같은 차디찬 바람이 피부를 발갛게 만들고 있었다. 겨울 밤은 길었고 밝은 추웠다. 별다른 의욕이 생기지 않는 노르웨이 교환학생 시절 중 어느 하루였다. 그런데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

오로라는 노르웨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다. 해가 뜨지 않는 노르웨이의 겨울에 여행을 가기 위해 우리는 며칠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물품을 준비했다.

그렇게 떠난 여행길, 우리는 각자 스키를 타고 눈 덮인 겨울산을 타기 시작했다. 얼마나 힘들던지, 어느새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온몸이 뜨거운 열기로 덮였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산 중턱에서 도시락을 꺼내니, 마치 냉동실에서 꺼낸 듯 차갑게 얼어 있었다. 하지만 모닥불에 데워 먹은 평범한 도시락은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었다.

어두운 산길을 헤매다 숙소인 오두막에 도착했다. 전기나 수도는 들어오지 않는 그냥 통나무 집이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호텔처럼 아늑하게 느껴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오두막이 별장을 짓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멋진 취미를 가진 대학 친구들이 존재하다니 놀라웠다!

선명한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북쪽으로 이동할수록 밤이 더욱 길어졌다. 우리 오두막이 위치한 곳도 높은 위도의 '트롬쇠(Tromsø)'라는 좁고 어두운 지역이었는데, 해가 비추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우리는 매캐한 기름 랜턴 앞에 둘러 앉아 카드 게임을 하

며 지루함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일행 중 한 명이 밖에서 맹수 소리를 들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북극곰이라도 나타났냐며 놀려대지만 마냥 즐겁기만 하던 우리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공포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어, 무섭지만 소리가 나는 곳을 탐사해보기로 했다. 실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진짜 짐승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훈련을 받고 있는 개의 소리였다. 개썰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근처에 있었던 것이다. 순간 긴장이 탁 하고 풀렸다. 개썰매의 주인과 금세 친구가 된 우리는, 덕분에 새 친구의 개썰매를 타보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여행의 원래 목적을 위해 서로 교대하며 오로라 보초를 서기로 했다. '보초'라고 말은 붙였지만 사실 한 시간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오로라가 있는지 없는지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 날은 오로라 예보가 있던 날이었다. 보초를 서던 친구 한 명이 오로라가 나타났다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갔고, 폭신한 눈을 침대 삼아 눈발에 드러누웠다. 그림처럼 끝없이 펼쳐진 오로라가 눈 앞에 펼쳐졌다. 숨이 멎을 것 같은 황홀한 광경에 매료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하 40도의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풍경이었다. 신비한 북쪽의 빛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좋은 친구들, 뜻밖의 인연, 멋진 풍경이 만들어낸 최고의 여행이었다.



‘벌레 이야기’를 읽고

박가영 사원 |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벌레 이야기〉는 영화 〈밀양〉의 원작소설이다. 작품의 인물과 내용은 다르지만, 소설과 영화 모두 용서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벌레 이야기〉는 한 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어린이의 유괴 살인 사건을 모티프로 삼았다. 소설은 주인공 남편의 시각에서 비교적 덤덤하게 서술된다.

어느날 아들 알람이가 실종되고 아내는 아이를 찾는 일에 몰두한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아들의 소

식은 들리지 않았고, 아이의 실종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아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람이를 찾아 나선다. 절간에 가서 쫓불공양을 하기도 하고, 아무 교회당에나 찾아가 헌금도 한다.

그러나 아이가 꼭 돌아올 거라는 희망과 기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실종된 지 두 달 스무날째 되던 날, 알람이가 집 근처의 한 건물 지하실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아이가 다녔던 주산학원의 원장이 범인으로 밝혀지고, 아내는 범인에 대한 복수심과 원망, 분노로 가득 찬다.

그 뒤 아내는 인사불성의 상태로 며칠을 지내지만 이웃 김집사 아주머니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일어난다.

그 후 아이의 내세의 구원을 위해 예배와 헌금을 하고 점차 저주와 원망이 줄어들어 안정을 되찾는다. 아내는 김집사의 설득으로 범인을 용서하려고 결심한다.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 아내는 범인을 찾아가고 직접 용서를 하려고 했지만, 범인은 이미



자신은 구원받았다며 용서를 받았다고 말한다.

결국 아내는 배신감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해 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이 마무리된다.

비교적 짧은 소설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

게서 먼저 용서될 수가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내의 종교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 컸던 만큼, 평온한 살인자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과연 신은 먼저 용서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신의 절대적 권력 속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닐까? 용서할 권리마저 빼앗긴 아내는 신에게 대항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끝내 자살을 택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찮고 작은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목을 ‘벌레 이야기’라고 한 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영화와 달리 원작소설은 새드엔딩으로 끝나 굉장히 안타까웠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소재를 통해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 종교와 인간의 존엄성,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소설이었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보고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 | 박주연 사원

재작년 이맘때 즈음이었다. 그 날은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부푼 하루였다. 원래 영화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즐겨 보던 나였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인디 장르를 좋아했다. 때 묻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교시절 <워낭소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던 적이 있어 내겐 인디 장르가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다.

조병만, 강계열 노부부의 삶을 처음 엿보게 된 것은 KBS 인간극

장에서였다. 거기엔 세월의 노곤함을 벗어던져버린, 알콩달콩한 부부의 삶이 있었다. 화장실 가기를 무서워하는 할머니를 위해 밖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던 할아버지의 모습도, 두 손으로 눈을 꾹 봉쳐 눈싸움을 하는 모습도,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였다.

영화를 보던 순간에도 내 기대는 멈출 줄을 몰랐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윽고 조병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의 산소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나왔다.

“아이고, 어떡해” 할머니는 연신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닦고, 뒤를 돌아보다 다시 눈물을 닦고, 뒤를 돌아보다를 반복했다.

‘죽어서도 함께, 살아서도 함께 할 사람’이 내 곁을 떠나리라는 생각을 어찌할 수 있었을까. 보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고, 나도 괜히 울컥거리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내가 보았던 롱테이크 장면 중에 가장 슬프고, 사실적이고,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었다.

누구나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꾼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게 관심을 표하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묵직한 진지함을 가졌다. 어쩌면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왜 사랑은 항상 어려울까.

왜 우리는 사랑하기를 회피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순수한 사랑을 꿈꿀 수 없는 걸

까. 왜 우리는 돈과 명예와 사랑을 일직 선상에 두며 저울질 하는 걸까.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독립영화 사상 최초로 480만 관객을 동원했다. 많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턱밑을 눈물로 축축하게 적시게 만들었다. 어쩌면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꿈꾸지 못한 사랑을 그려냈기 때문이 아닐까.

순수한 사랑은 스스로가 찾아가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꽃을 내밀어 보고,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해보고,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차 한 잔이 가져다주는 여유

고연우 사원 | 현대삼호중공업 HS-POPS팀

이상하게 뿌듯함보다는 헛헛함과 씁쓸함이 자꾸 밀려드는 요즘이다. 항상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건 아니었지만, 나는 지난 것들에 후회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면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어떤 기회와 만남이 있을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준비 아닌 준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목표 없는 준비가 나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학교에서는 항상 하고자 하는 일들이 가득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이야기를 하는 재미로 살아갔다.

나는 자신이 있었다.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니, 나는 할 수 있는 것들만 도전했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누군가 나에게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빠져서 꾸준히 도전해본 적 있냐고 물으면 나는 창피하지만 '없다'라고 대답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도전하더라도 나는 실패의 조짐이 보이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에게 예외인 말이다. 내게 맞는 길이 어딘가에 꼭 존재할 거라고 강하게 믿기도 했지만, 연속되는 실패 속에 두 번 다시 일어나기 힘든 상처들이 늘어갔다. 그래도 나는 수많은 도전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

갔다.

그러나 앞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일만 도전할 생각은 없다. 단지 나는 정말 내가 변화할 수 있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아직 못 찾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따라 꾸준히 걸어가면, 언젠가 제대로 된 성공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난 여전히 품고 있다.

혹자들은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며 나를 주저 앉히려 할지도 모른다. 사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에, 나는 나이가 들수록 무섭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 뒤돌아 보면 항상 그랬다.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언제부터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행동했다. 나는 그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려 했다. 나에게 책임감이란 현실과의 타협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길어질수록 확신은 불안으로 안정은 조금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다.

그래서일까. 평소 차를 좋아하지 않은 나지만, 가만히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의 여유가 너무나 부러워 보였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도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난 카페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차 한 잔의 여유를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부디 언젠가는 누군가 창 밖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나를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열망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길 바라본다.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를 다녀와서

현대미포조선 산체가공부 | 권나연 사원



주말을 맞아 미루고 미뤘던 봉사활동을 드디어 가게 되었다. 보호센터는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해 있었다. 명칭은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이지만 부산과 더 가깝다.

날씨가 좋아 들뜬 마음도 잠시,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보호소는 강아지들의 냄새와 짖는 소리, 파리와 배설물로 가득했던 것이다.

관리가 되지 않아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강아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그런 듯했다. 실제로 보호소 규모는 작지만, 300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이 있다고 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고무장갑과 마스크, 앞치마를 두르고 대형견들의 사료와 물을 배급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밥그릇에 사료와 물을 담고 나눠주니 개들은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 수가 많다 보니 설거지 할 그릇도 많았다. 일을 끝내는데 3명에서 30~40분 가량이 걸렸다.

설거지 후, 잠시 쉬며 보호소를 둘러보았다. 아까 사료를 줬던 대형견 건사와는 달리 건물 안에 있는 건사에는 가정에서 흔하게 키우는 종류의 견종들이 많았다.

보호소 안에 산지 2년 넘은 강아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눈빛이 슬퍼 보였다.

자기 몸통만한 우리 안에서 힘없이 축 처져 있는 강아지가 대부분이었고, 사람이 들어가면 심하게 짖는데 마치 깨내달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이후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보호소에는 강아지의 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산책을 자주 하지 못한다고 했다.

내가 맡은 흰색 강아지는 오랜만의 산책이라 그런

지 엄청 신난 것이 눈에 보였다. 20분 정도 산책시킨 후 다시 우리 안으로 넣어야 하는데 들어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눈에 걸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픈 강아지를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는 일을 맡았다. 병원 가는 길은 30분 정도로 짧은 거리이지만, 멀미 때문인지 연신 기침을 토해내는 강아지로 인해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 나는 강아지를 달래려고 연신 토닥거렸다.

봉사가 끝나고, 어릴 적부터 강아지를 좋아해서 무작정 키우자고 했던 내가 한심스러웠다. 보호소에 있던 강아지들은 대부분 어릴 때 분양을 받아 사랑 받았지만, 병들고 나이가 들면서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호소를 갔다 오니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졌다.

요즘 ‘반려견 1천만 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주위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사랑받는 강아지도 많지만 그만큼 아프고 버려진 강아지도 많다. 주위에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기견을 입양해 보는건 어떨까?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외양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나는 보호소를 다녀온 뒤 친구들과 또 한 번 봉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유기동물센터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주말에 시간이 난다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호소로 봉사활동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콧물왕자와 실수쟁이 엄마

김현숙 | ㈜한얼시스템 장요섭 과장 부인

“눈썹왕자는 콧물왕자”

2012년 12월의 겨울, 한결이는 태어났다. 2.58kg의 작은 몸. 하지만 다부져 보였던 한결이의 첫인상은 눈썹이 진하게 말려있는 것이 특이해서 보는 사람마다 눈썹 인사를 꼭 하셨다. “엄마 뺏속에서 눈썹 문신하고 나온 거야? 고집이 센 눈썹이네~ 어느 대기업 회장님 눈썹도 이렇더라! 우와~ 눈썹왕자님이네” 하시면서.

그 눈썹왕자는 그렇게 겨울에 태어나 또 한 번의 겨울을 지나고, 세 번째 겨울을 지나면서 콧물왕자가 되었다. 얼마 전 한결이 소아과 선생님께선 “한결이 많이 컸는데 기관지는 아직 덜 컸네요” 하시고, 감기가 거의 나아가는데 열이 또 올라 병원에 가면 “또 새로운 감기가 시작되네요”라고 하셨다. 한여름에도 예외 없이 감기를 달고 살아 낮에는 개구쟁이로 흐르는 콧물을 훔쳐가며 씩씩하게 잘 놀다가도 밤이 되면 기관지가 불편해 잠자기 힘들어 했다. 편도가 부어 열이 오르고, 코는 항상 수도꼭지가 고장 난 것 마냥 콧물 범벅이 돼 있었다.

“허둥지둥 실수쟁이 엄마는...”

2012년 12월의 겨울, 서른여덟. 엄마로서는 늦은 나이로 한결이를 낳았다. 출산 당시엔 한결이와 호흡이 꽤 잘 맞아서였는지 자연분만으로 순산을 하였는데, 그 후로는 몸이 좀 약해졌다. 그래서 마음도 허둥허둥 몸도 바둥바둥. 콧물왕자 한결이와의 씨름이 여간 어수선했던 것이 아니었다. 원래 잘 당황하는 성격인지라 더 그랬던 것 같고, 여전히 지금도 좀 그렇다.

그런 엄마를 둔 한결이에게는 신중한 습관이 생기기도 했다. 밥을 숟가락으로 떠주면 허를 내밀어 뜨거운지 꼭 확인한다. 씻는 물도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살짝 대보고 들어간다. 모두 내가 실수를 몇 번 하여 한결이에게 생긴 버릇이다.

엄마와 한결이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했다. 모두 잠드는 깊은 밤이 되면 한결이는 기관지가 힘들어 울고, 방에서는 도저히 울음이 그치지 않아 어둑어둑한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고,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차를 기다리는 새벽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기도 하고, 업고 나오고 안고 나오는 게 거의 매일의 일이었다.

부모님들과 통화하면 인사가 거의 “한결이 밤엔 잘 잤나? 몇 번 잤나?”였다. 신생아도 아닌데 말이다. 소아과 선생님께 진료 받으면서도 “밤에 너무 잠을 안자요. 혹시 일춘기 아닐까요?” 하면서, 감기 콧물 편도를 넘어서 진심으로 한결이를 상담하기도 했다.

한결인 계속 콧물왕자이긴 했지만 4살을 넘어서 감기를 이겨내는 힘이 좀 길러진 것 같고, 밤에 잠자는 것도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밤에 그냥 깨지 않고 잔다는 것.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나에게게는 특별한 감사일 수 밖에 없었다.

“Sweet 고구마 젤리”

한결이가 처음 말을 시작할 때는 웅알이로 “또꼬이 또꼬이~” 이런 발음을 했었다. 말랑한 새 허 위에 어떤 독일 아저씨가 사는 것처럼 신기해서, 우리는 한결이를 ‘또꼬이씨’라고 불렀다. 그러더니 금새 날



말을 말하고 문장을 말하는데, 그 작은 혀에 담긴 세상이 참 귀여웠다.

그런데 그때부터 새로운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평소 화학성분 없는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이고 싶었던 엄마와 달달한 과자만 좋아하는 한결이의 신경전이랄까. 나는 무심히 고구마 말랭이를 먹다가 번득 ‘이거 달콤하고 쫄쫄한 게 꼭 젤리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위로 고구마 말랭이를 잘 오려서 젤리인척 위장을 하고 비장하게 한결이에게 접근했다.

“한결아, 이거 젤리야. 진짜 맛있어~” 하고 내밀었더니, 한결이는 놀다가 그냥 무심히 받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다. 걱정과는 달리 잘 먹는 것 같아 “한결아 진짜 맛있는 젤리지?” 했더니 “응~ 엄마, 고구마 엄청 맛있어~” 한다.

“늑대”

어렸을 때 엄마가 틀어준 동화 카세트 테이프를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던 나는 한결이에게도 오디오의 감성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음원 사이트를 찾았는데, 내가 좋아했던 백설공주, 인어공주 등 각종 공주 시리즈들은 상남자(?)인 한결이에게 별 감동이 없을 것 같아 아가돼지 삼형제를 들려줬다.

잔뜩 기대감을 갖고 한결이가 잠들기 전에 틀어줬는데, 웬걸! 늑대의 연기가 너무 생생해 한결이가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는가? “엄마! 한결이 무서워~ 이거 아니야~” 다시는 동화 테이프를 틀지 못했지만 그 대신, 우리집에 등장한 늑대는 한결이가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릴 때 유용하게 소환 되기도 했다.

“한결아, 코~ 안자면 늑대 온데~ 한결이 밥 안 먹으면 늑대 오라 한다~” 덕분에 한결이는 군소리 않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지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든다.



“개미까까”

어떤 날은, 놀이터 그늘에 앉아 멀리서 뛰어 노는 한결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결이가 막 뛰어 놀다가 나무 그늘 밑 흙을 막대기로 긁적긁적 하는 것 아닌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옆에 다른 아이가 한결이더러 “땅거지~” 하는 거였다.

깜짝 놀라 가봤더니 흙 묻은 과자를 오물오물 먹고 있었다. 내가 놀라 쳐다보니 “엄마! 한결이 개미까까 뺏어 먹었어!” 씩씩하게 말하는 입 주위가 모래흙으로 흥건했다. 바닥을 보니, 개미들은 무슨 재난을 당한 것 마냥 허둥지둥 분주했다.

“고마워, 사랑해”

이제 한결이는 6살.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한결이는 약한 몸을 잘 이기고 참 많이 큰 거 같다. 나도 엄마로서 6살, 더 단단하고 성숙한 엄마가 되도록 한결이가 잘 도와준 것 같다. 한결이와 엄마는 이렇게 꼭 같이 6년만큼 컸다.

“한결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로도 잘 부탁해. 그리고 많이 사랑해~”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1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유은정 著)

이 책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기대심리의 뒷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기대심리의 뒷'이란 타인에게 준 만큼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저자는 결국 자기 자신만 상처받게 되는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대심리의 뒷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꼭 버려야 하는 편견으로 치칭합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가는지, 어떻게 편견을 버릴 수 있는지, 이 책은 옆에서 누군가 상담해주는 듯한 문체로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지은 대리
현대중공업 해양선장설계부

2



도구와 기계의 원리 (데이비드 맥컬레이 著)

이 책은 전 세계에서 28년간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얼마 전 국내 모 케이블 방송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고대부터 사용하던 지레, 쟁기를 시작으로, 풍차, 자동차, 컴퓨터, Wi-Fi, 전기 기타, 로봇, 우주 탐사선, 가상 현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변화시킨 수백 가지의 도구와 기계를 백과사전처럼 총망라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도구와 기계들이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전문가, 기계를 좋아하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기에 손색이 없는 책입니다.

김송연 사원
현대미포조선 건조2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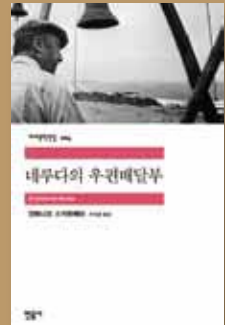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안드레아스 크누프 著)

이 책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비난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행복 안내서입니다. 저자는 독일 심리학계에서 자존감 회복 분야에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로, 20년 동안 자기비난의 늪에 있는 이들을 상담하며 완성한 '마음 훈련법'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친절할 사람은 자기비난이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며, 자신을 단점도 있지만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끊임없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도록 도와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관심 있는 사우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김수희 사원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보건부

4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著)

이 책은 이탈리아 영화로 유명한 '일 포스티노'의 원작 소설입니다. 책 제목에 나와있는 '파블로 네루다'는 칠레의 유명 시인으로 실존 인물인데, 여기에 '마리오 히메네스'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주인공 마리오네는 파블로의 시를 듣고 난 뒤 처음 접해보는 '메타포(은유)에 멀미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처럼 책에는 많은 메타포가 있습니다. 정치 연설을 할 때, 사랑을 구애할 때, 죽는 순간까지 다양한 메타포가 함께 합니다. 이에 독자는 제 3자가 아닌 마리오의 감정에 이입해 '울렁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칠레 군사 독재의 암울한 배경 속에 순수함을 간직한 마리오를 상상하며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윤소영 사원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5



징비록:지옥의 전쟁, 그리고 반성의 기록 (유성룡 著)

‘징비록’은 몇 년 전 TV드라마로 제작돼 우리에게 친숙해진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서책으로는 드물게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쟁 이전의 국내외적 정세부터 임진왜란의 실상 그리고 전쟁 이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내용들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전쟁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전하는 동시에, 패전의 실책을 낱낱이 기록해, 후세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책을 읽기 전 내용이 딱딱할 것이라는 편견이 무색할만큼 몰입감이 뛰어나고 번역도 매끄럽게 잘 되어 있어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송주완 대리
현대미포조선 자재구매부

6



조용히 이기는 사람들 (마티아스 놀케 著)

큰 소리 내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에 힘이 있고, 묵묵히 늘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한 발 뒤로 물러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도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저자는 성과 관리, 화살 같은 자기개발에 필요한 영역부터 역사와 심리 같은 인문 분야까지 두루 망라하여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누군가 허풍을 떨 때 어떻게 세련되게 물리치는지, 또 어떻게 절제하는 태도로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지 이 책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금속 사원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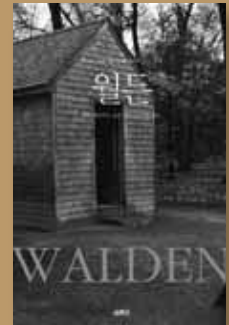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著)

작가의 독특한 상상력이 빛나는 작품을 사우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현생인류 이전 10배나 큰 체격을 가진 ‘전생인류’와 과학적 산물로 나온 현생인류보다 10배가 작은 체구의 ‘차세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1권부터 6권까지 숨막히게 전개합니다. 다만, 책을 접하는 독자마다 생명 창조라고 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편이기에 처음에는 책 읽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순간순간마다 독자를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어 이 부담감도 잠시엔 불쾌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베르나르가 독자들에게 선물한 이 책을 보며, 과학과 소설이 빚어내는 환상의 조화를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배철민 차장
현대중공업 해양설계운영부

8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著)

‘월든’은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대표작입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1845년 월든 호숫가의 숲 속에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발을 일구면서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2년간에 걸쳐 시도한 끝에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소로우는 이 책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 소박하고 겸손한 삶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출세 지상주의와 배금주의 등 헛된 환상에 시달리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이 책이 깊은 깨우침과 위안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관귀 대리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식당에 벗어난 비싼 신발이 없어졌어요

| 사례 및 질문 |

심대리는 휴가 중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구두를 회사에 신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서에서 회식을 했는데, 식당에 벗어난 신발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심대리가 식당 주인에게 신발이 없어졌다고 따지자, 식당 주인은 신발장을 가리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식당 신발장에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심대리는 식당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답 변 |

식당, 헬스클럽, 목욕탕에서 흔히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상법 제 152조는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라는 내용일까요?

상법 제15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152조에 규정된 '공중접객업자'는 음식점, 목욕탕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公衆)이 드나드는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임치'란 고객이 접객업자에게 물건을 맡겨두는 것을 말하며, '멸실'이란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심대리가 잃어버린 고가의 신발 사건으로 돌아와 봅시다. 식당에서는 별도로 신발장을 두고 있고, 고객이 신발을 벗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종업원이 신발을 신발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심대리가 식당에 신발을 맡겼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 식당 주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물건이 식당주인의 과실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항에서 보듯이, 분실에 책임이 없다고 써 붙인 경우에도 식당 주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규정도 불구하고, 심대리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배상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만약 업주가 단순히 배상하려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구두에 대한 배상액에 다름이 생긴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실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자료로 구입시점과 구입가격을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주가 끝까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심대리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기에는 금액이 적은 편이어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 식당 주인이 끝까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02-746-4667





십자말 풀이



가로 열쇠

- ① 매년 9~10월경 열리는 네덜란드 최대 명절이자 축제. (p.15 참고)
- ② 프랑스 출신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 그러나 그의 후기 작품은 인상파에서 이탈해 풍부한 색채표현으로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p.83 참고)
- ③ 최근 국민게임으로 불리는 이 게임이 리마스터 버전을 출시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OO크래프트.
- ④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함을 이르는 말.
- ⑤ 일제강점기 때 울산 시민들이 강제 동원되어 만든 OO이 최근 문화단지로 새롭게 조성됐다. (p.41 참고)
- ⑥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 ⑦ 철망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검을 찬 두 명의 경기자가 서로 찌르거나 베는 방법으로 득점을 얻어 승부를 겨루는 경기.
- ⑧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로, 음력 팔월 보름날이다.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차려를 지낸다.
- ⑨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을 통틀어 일컫는 사자성어.

세로 열쇠

- ① 현대삼호중공업 잠수동호회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목포해양경찰서 특수구조대에 심해를 자유롭게 오가는 '트라이믹스 000' 교육을 실시했다. (p.30 참고)
- ②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 ③ 14세기~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
- ④ 한국 고유의 신명 나는 사물놀이 장단에 주방 도구들을 악기 삼아 펼쳐지는 퍼포먼스. (p.65 참고)
- ⑤ 우리나라의 국화로, 태화강대공원에는 이 꽃이 만발한 정원이 꾸며졌다. (p.50 참고)
- ⑥ 경주시 토함산 동쪽에 있는 사원으로,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축조했다.
- ⑦ 현대중공업은 최근 214급 잠수함에 무장항일 운동에 앞장 선 평민출신 의병장의 이름을 따 명명했다. 이 잠수함의 이름? (p.22 참고)
- ⑧ 마음이 들떠서 어수선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양.



퀴즈 당첨자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홍석호 현대중공업 도장5부

Hotel Hyundai 울산 뷔페권(2인)

김광주 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최성욱 현대중공업 판넬조립5부

윤현지 현대미포조선 현성엔지니어링

후생사실 이용권(1만원)

박지은 현대중공업 해양선장설계부

윤소영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배철민 현대중공업 해양설계운영부

김영철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조립1부

윤석찬 (주)지디텍

김동국 현대중공업 조선품질경영부

윤공한 현대미포조선 도장2부

이승혁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권상창 현대중공업 선형도장부

김운관 현대중공업 NASR AP공사부

울산현대축구단

상품권 (2만원)

명노훈 현대중공업 시운전부

류덕수 현대중공업 종합지재운영부

정현진 현대중공업 해양내업생산부

상품권 (1만원)

조봉주 현대미포조선 선체가공부

전병국 현대미포조선 선형의장부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김덕희 현대중공업 건조2부

손승경 현대중공업 선각기술부

최우희 현대미포조선 의장2부

OUTBACK 식사권(5만원)

강현지 현대중공업 선박성능연구실

최재석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생산부

강세현 현대미포조선 선실설계부

Hotel Hyundai 목포

뷔페권(2인)

최광성 현대삼호중공업 선장설계부

케이크 교환권(1매)

박수빈 현대삼호중공업 원가회계부

이영진 현대삼호중공업 전장선실설계부

사내매점 간식교환권(1만원)

정주경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김현진 현대삼호중공업 기장설계부

장서정 현대삼호중공업 건조3부

추민호 현대삼호중공업 선실생산부

오경남 현대삼호중공업 건조1부

신안천일염

정일수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이재환 현대삼호중공업 구조설계부

전호영 현대삼호중공업 공무부



지나호 정답



가로 1번의 정답을 10월 18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주첨을 통해 꾸민 상품 드립니다.

※ 핸드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화번호 대신 매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사람

news@hhi.co.kr

정답

회사명

부서

이름



오귀스트 르누아르(1841~1919), '건지 섬 주변의 언덕'(1883)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로 우리에게 익숙한 오귀스트 르누아르(Auguste Renoir).

하지만 그의 후기 작품은 인상주의를 벗어나 새로운 화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폼페이 벽화를 보고 받은 신선한 충격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는 그 때의 감동을 잊지 않고, 풍부한 색채로 작품을 표현해 독자적인 아름다움으로 창조해냈습니다.

오귀스트 르누아르가 오랫동안 해온 관성,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자신의 강점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것로부터 벗어나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10월,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들도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꿈과 의미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장을 지배하라!

RULE THE GROUND

당신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가치와 만족을 선사할 HX시리즈!
이제, 현대건설기계 HX시리즈로 현장을 지배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HX300

역동적인 HX시리즈의 무한한 가능성은 당신과 함께
오늘의ダイナ미한 현장에서 내일의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상상 이상의 강력한 파워와 획기적인 연비절감
기능을 갖춘 HX시리즈를 통해 당신의 더 나은 내일과
함께 할 것 입니다.

MOVING YOU FURTHER

